

연구보고 02-16

# 세계화시대의 언어민족주의와 정보화 전략

2002. 12

김상배/김진영/유지연

## 서 언

생산과 금융 등의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세계화의 현상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의 양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기술과 경제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세계가 하나로 수렴(convergence)하는 현상이라면, 다른 하나는 무차별적으로 획일화되는 세계화에 대하여 개별 사회와 문화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저항의 과정입니다. 소위 경제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반(反)세계화 운동이나 소위 글로벌문화(global culture)의 확산에 대한 비서구사회의 저항 등이 이러한 세계화의 복합적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요컨대, 21세기 세계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글로벌 환경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국가(nation-state)를 중심으로 재결집되는 민족주의의 대결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연구는 세계화의 진전과 민족주의의 저항으로 대변되는 복합적 사회경제적 변화의 과정을 정보화의 맥락에서 분석적으로 검토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사실 정보화는 세계화와 함께 21세기의 변화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까지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한 연구는 각기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살펴보면, 세계화와 정보화는 더욱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화는 최근에 들어서서 부쩍 글로벌 영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화가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세계화의 전반적인 영역에 관여하게 되면서 세계질서의 변화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변수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화와 정보화가 만나는 21세기의 문턱에서 세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보화의 분야에서 발생하였던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역동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구체적인 사례로 채택한 것은 1990년대 후

반이래 한글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산업과 한글 인터넷도메인 분야에서 등장하였던 '언어민족주의(linguistic nationalism)'의 사회운동입니다. 사실 정보기술이 기존의 산업기술과는 달리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언어의 처리를 그 기술적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술에 구현된 언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일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기술이나 경제의 논리로 치환될 수 없는 고유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에 걸쳐서 한글이라는 동일한 언어와 문자체계를 공유해 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한글은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기술 세계에서 '세계어(global language)'로서 균림해 온 영어의 구조적 지배에 대해서 한글을 중심으로 한 언어민족주의적 대항이 한국에서 발생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본 연구는 정보화 분야에서의 언어민족주의적 대응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세계화시대 민족언어체계의 활용문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보화전략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지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진과 여러 가지 면에서 자문에 응해주신 정용화 교수(제2장), 이성철 박사(제3장), 양왕성 이사(제3장), 이영음 교수(제4장), 그리고 그 외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련 기관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한층 성숙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정보사회가 더욱 성숙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윤 창 번

## 목 차

서 언 .....	1
요약문 .....	7
제 1 장 서 론 .....	19
제 2 장 언어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	25
제 1 절 근대 언어민족주의의 형성 .....	26
제 2 절 한글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	29
제 3 장 한글워드프로세서와 언어민족주의 .....	38
제 1 절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전개 .....	38
제 2 절 한글코드와 소프트웨어 표준경쟁 .....	45
1. 한글코드와 아래아한글 .....	45
2. OS환경의 변화와 아래아한글 .....	49
제 3 절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책과 제도 .....	53
1. 한글코드의 표준화 정책 .....	54
2. 지적재산권 레짐 .....	57
제 4 장 한글도메인과 언어민족주의 .....	62
제 1 절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의 전개 .....	62
제 2 절 언어코드 표준화와 한글키워드 서비스 .....	69
1. 다국어 코드의 표준화 .....	70
2. 한글키워드 서비스의 표준경쟁 .....	75

제 3 절 다국어 도메인 관리의 제도화 .....	81
1. gTLD차원의 다국어 도메인 제도화 .....	82
2. ccTLD차원의 다국어 도메인 제도화 .....	87
제 5 장 결 론 .....	92
참고문헌 .....	101
약어풀이 .....	105

## 표 목 차

〈표 3-1〉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전개과정 .....	41
〈표 3-2〉	아래아한글 사태에 대한 세 가지 입장 .....	43
〈표 3-3〉	한글코드 표준화의 전개과정 .....	55
〈표 4-1〉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의 전개과정 .....	66
〈표 4-2〉	한글도메인에 대한 세 가지 입장 .....	68
〈표 4-3〉	다국어 인코딩방식 비교 .....	71
〈표 4-4〉	IETF IDN 워킹그룹의 ACE 테스트 결과 .....	73
〈표 4-5〉	다국어 도메인의 범위 .....	74
〈표 4-6〉	한글 다국어 도메인 지연 일정 .....	75
〈표 4-7〉	일본의 도메인 등록율 .....	89
〈표 4-8〉	대만의 도메인 등록율 .....	90

## 그 림 목 차

[그림 3-1]	2바이트 표준 한글코드의 비교 .....	47
----------	------------------------	----

## 요 약 문

### 제1장 서론

최근의 추세를 보면, 세계화의 영향은 경제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글로벌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문화의 세계화는 국가와 사회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인이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글로벌문화(global culture)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수백 년간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해 온 근대적인 민족주의(nationalism)도 불가피한 변화를 겪고 있는 듯이 보인다. 세계화의 진전은, 한편으로 근대적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글로벌 정체성(global identity)의 출현을 예견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적 동질화의 과정에서 개별 사회와 문화의 고유한 요소들이 차별화되는 계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2001년에 발생했던 9·11 미국 테러사태를 거치면서 더욱 더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언어민족주의(linguistic nationalism)’라는 개념적 틀을 통해 기술·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무차별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저항양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굳이 언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화의 와중에 자기변화를 겪고 있는 민족주의의 모습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언어가 일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를 중심으로 세계화시대의 민족주의를 살펴보려는 문제의식은 정보화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을 모색하려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관심사와도 일맥상통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언어민족주의의 이론과 역사적 형성과정을 서구의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 형성과정과 한국의 한글창제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장과 제4장에서 각각 한글워드프로세서와 한글민족주의의 문제, 한글도메인과

한글민족주의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V장의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분석틀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화시대의 언어민족주의에 임하는 정보화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제 2 장 언어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민족은 일반적으로 ‘공통의 언어, 지역, 경제 생활 및 공통의 문화로 표현되는 심리 상태를 토대로 형성된 역사적으로 구성된 공동 사회’로 정의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이 스스로를 ‘민족’으로 자각하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며, 정치적 의미에서 오래지 않은 일이다. 언어민족주의는 언어를 근대 민족국가 또는 근대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는 사상을 가리키며, 언어민족주의 운동은 민족어의 보급과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서구와는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한 한국에서도 언어민족주의의 표출이 근대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표출 양상은 한민족의 종족적 단일성이라는 특성 및 중화 문화권에서의 오랜 역사적 경험, 제국주의 침략의 경험과 같은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 따라 독자성을 지닌다. 언어민족주의가 구체적인 운동으로 드러난 19세기 제국주의 침략기의 독립신문 창간, 20세기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의 한글전용운동,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 한글인터넷주소운동 등을 통해서 한국 언어민족주의의 독특한 표출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 제 3 장 한글워드프로세서와 언어민족주의

1990년대에 들어서 발생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은 한글민족주의의 발로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아래아한글살리기 운동은 ‘기술·경제 논리’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공세를 ‘사회 문화논리’를 바탕으로 한 한글민족주의가 대항하여, 한글과 컴퓨터(이하 한컴)의 아



래아한글 워드프로세서를 방어해 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견 한글민족주의의 승리로서 비추어질 수 있는, 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운동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없는 복합적인 논리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에 담겨있는 사회문화논리의 저변에 있는 정치경제학적 동학에 대해서 검토한다.

### 제 1 절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전개

1998년 6월 15일, 한컴의 이찬진 사장은 MS에 회사의 지분 19%를 매각하는 대신에 주력사업인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서의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약내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국내의 아래아한글 사용자들은 발끈했고,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아래아한글을 살리기 위한 거국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운동이 조직화되었으며, 소위 ‘아래아한글살리기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정식으로 발족되기에 이른다. 아래아한글은 한글의 창제원리를 가장 잘 구현한 국산 워드프로세서이며 한글공동체 전체의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컴이나 아래아한글을 살리는 것은 곧 한글 자체를 지키는 것이라는 이른바 ‘한글민족주의’의 정서가 표출되었다.

운동이 진행되면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주체는 벤처기업협회가 주도하는 운동본부로 통합되었지만, 아래아한글의 장래와 대안 등과 관련해서는 토론이 진행되어,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입장들이 표출되었다. 먼저, 벤처기업협회 주도의 운동본부 측에서 개진한 주장으로 국민주 모금운동을 통한 한컴의 회생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둘째, 한국소프트웨어컨소시엄 등에서 제기한 주장으로 아래아한글을 살리는 것과 한컴의 명맥을 잇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서 인식하는 입장이었다. 끝으로, 열린한글 프로젝트 등에서 주장한 입장으로서 아래아한글을 공공재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접근법이었다.

아래아한글 사태의 진전은 결국 한컴이 MS의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운동

본부 측의 제안을 수용하여 아래아한글을 살리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한컴이 운동본부측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운동 자체가 궁극적으로 한컴과 아래아한글을 살렸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다음절에서는 이렇게 한컴이 좌절하게 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치경제적 동학을 MS와 한컴간의 소프트웨어 표준경쟁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제 2 절 한글코드와 소프트웨어 표준경쟁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이면에 존재했던 정치경제학적 동학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한컴이 한글 워드프로세서시장에서 MS와 벌인 표준경쟁을 살펴봐야 한다. 한국시장에서 양 사간의 경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첫째, 한글코드를 놓고 벌어진 아래아한글과 MS워드간의 경쟁이다. 둘째, 컴퓨터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이하 OS)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응용프로그램으로서의 워드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MS와 한컴간의 비대칭적 경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컴은 OS의 한글코드 지원기능에 순응하기보다는, 한글의 기본원리인 초성, 중성, 종성의 결합원리에 맞는 것으로 알려진 한글코드를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경쟁은 OS의 우위에 바탕을 둔 MS가 채택하였던 사실상의 한글코드가 득세하는 과정이었다.

### 제 3 절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책과 제도

한컴의 아래아한글 사업포기는 단순히 한컴과 MS의 두 기업 차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업간의 계약을 떠나 일반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 전개된 것과 함께 한글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산업을 뒷받침했던 한국의 정책과 제도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나는 한글코드의

완성형과 조합형을 둘러싼 표준화 정책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와 관련된 한국의 지적재산권 레짐의 문제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은 한글코드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레짐의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완성형과 조합형의 사이에서 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을 때 시장은 MS의 주도로 판이 짜여졌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을 뿌리채 뒤흔드는 불법복제의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 제 4 장 한글도메인과 언어민족주의

본 장에서는 한글인터넷주소운동에 담겨있는 사회문화논리의 규명과 함께 이에 편승하려는 경제적 이해관계 및 다국어도메인의 관리를 둘러싼 정치적 의도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이념’의 차원에서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의 논리와 전개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의 상층이 관찰되는 영역으로서 ACE나 UTF 등과 같은 언어코드의 표준화 문제 및 다국어 키워드 서비스의 표준경쟁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다국어 도메인 관리의 ‘제도’를 구축하려는 국제적·국가적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다국어 도메인과 관련된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략방안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 제 1 절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의 전개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al top level domain, 이하 gTLD) 수준에서 제도화가 되기 전에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이하 ccTLD) 수준에 서라도 한글 도메인을 도입하자는 논의의 배경에는 한글 도메인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인터넷을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이러한 편의성의 논리와 함께 제기되는 것이 소위 민족적 문화정체성의 논리이다. 도메인이름을 영어로만 표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국가마다 민족마다 서로 다른 문

화와 언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이러한 논리에서 출발하였다.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에 따라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욕구도 높아져가고, 사이버공간상의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글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한민족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는 한글도메인을 사용하자는 문제제기가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글 도메인에 대한 문제제기는 기업, 한글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산발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이었고 일정한 구심점을 통해 결집된 움직임이 이루어지지지는 못했었다.

또한 논의의 진행도 인터넷 도메인 관리체계가 .com, .org 등의 gTLD수준과 .kr의 ccTLD수준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체계로 정착되어 나감에 따라, 각각의 수준별로 누가 다국어 도메인, 또는 한글 도메인을 어떻게 제공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논의로 분산되었다. ccTLD수준의 한글도메인(한글.기업.kr)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KRNIC)을 통하여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한글도메인이 상호호환성을 문제로 시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1999년에 한글도메인 방식의 다른 형태인 한글 키워드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여 일반인에게 한글도메인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글인터넷주소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운동이 활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00년 12월에 MS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리얼네임즈(Realnames)가 한글키워드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이다. 시장 선점을 둘러싼 표준경쟁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인 넷피아는 리얼네임즈의 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있어 왔던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넷피아 주도의 '인터넷 주소의 한글화' 논의가 발전되어 각 사회단체가 연합하는 형태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2002년 1월에는 한글인터넷주소추진총연합회의 출범(www.hiau.org)으로 구체화된다.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글도메인에 대하여 세 가지 입장이 표출되었다. 첫 번째는 언어와 민족을 동일시하고 민족언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민족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언어민족주의적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의 입장은 언어민족주의 논리의

강조로 오히려 인터넷 세상 속의 '섬(island)'이 되지 않을까 하여 한글도메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는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차원에서 한글도메인에 대하여 꾸준히 논의하여 온 주소위원회(NNC)의 입장으로서 민족정체성에 대한 정서는 인정하지만, 국제표준을 수용함으로써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호환성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아직까지 범민족적인 운동의 차원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하였다. 게다가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한글인터넷주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했다기보다는 네티피어라는 기업의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데 그쳤다는 한계를 보인다.

## 제2 절 언어코드 표준화와 한글키워드 서비스

한글도메인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동학을 알기 위해서는 다국어 도메인의 표준화와 기타 관련 분야에서의 표준경쟁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국어 도메인은 비영어권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의 이해(利害)가 사이버공간에서도 사실상(de facto) 표준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영어 중심의 글로벌 논리에 대한 반론으로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반론은 우선 영어에 기반을 둔 ASCII 코드와 이에 대항하는 UTF (UCS Transformation Format) 코드 사이의 언어코드 표준화를 둘러싼 논쟁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다국어 도메인이 작동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상호연동성(interoperability)이다. IETF의 IDN 워킹그룹에서는 여러번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끝에 Puny code를 표준안으로 결정하였고 IETF와 ICANN회의를 통한 확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표준안이 확정되었다고 하나, 1970~1980년대 국내 전자산업 내에서의 조합형, 완성형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표준의 논리는 반드시 기술적으로 우월한 표준이 사실상의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무엇을 표준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논쟁에 지나치게 휩쓸리기 보다는 새롭게 형성되는 표준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며 재빠르게 국제 표준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다국어 도메인 서비스의 실현

을 앞당기는 길일 것이다.

또한 인터넷키워드 서비스 분야에서 리얼네임즈와 넷피아의 한글키워드 시장을 놓고 벌인 표준경쟁에서도 드러났다. 키워드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거쳐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키워드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도메인 네임 서버에 설치하는 server-side 해결책이고 두 번째 방법은 키워드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주소를 찾도록 익스플로러 같은 인터넷 검색 소프트웨어에 설정해 놓는 client-side 해결 방법이다. 전자가 넷피아, 후자가 리얼네임즈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양자간의 서비스 방식상의 논쟁이 계속되었으나 리얼네임즈가 MS와의 계약 갱신 실패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넷피아가 한글키워드 방식의 도메인서비스 국내특허를 획득하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키워드서비스의 도입 문제는 계층형 한글 도메인체계의 수용문제와 함께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한 대목이며, 특히 두 가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키워드서비스에서 표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ccTLD 수준의 한글도메인처럼 공식적인 기구가 나서서 진행하는 '표준화(standardization)'의 문제라기보다는 민간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표준을 놓고 벌이는 '표준경쟁(standards competition)'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TA가 나서서 제시한 키워드서비스 표준이 공식적인 권위를 갖고 해당 이해당사자들에게 수용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양을 답습하는 것은 키워드서비스의 표준경쟁적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키워드서비스는 인터넷 도메인의 표준화 문제보다도 데이터베이스산업이나 지식정보서비스 일반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 3 절 다국어 도메인 관리의 제도화

다국어 도메인은 비영어권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한편 기존의 도메인 공간을 획기적으로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관리권 및 정책 결정권이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가

역시 큰 이슈로 대두된다. 도메인을 관리한다는 것에는 등록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메인 분쟁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는 각 언어권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각 지역의 입장이지만 ICANN이나 IETF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표준 및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다국어 도메인 관리의 문제는 크게 gTLD차원의 제도화와 ccTLD차원의 제도화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ICANN, IETF 등 기존 도메인 체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들 내에서는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다국어 도메인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던 중국어권의 국가들,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다국어 도메인 관련 활동에 협력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다국어 관련 협의체로는 2000년 6월에 다국어 도메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한 MINC와 2000년 7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인터넷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자국어 도메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JET이 있다.

또한 각 지역 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언어별 협의체가 구성되어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해당 언어 사회가 다국어 도메인을 관리한다면 실질적으로 언어가 통용되는 언어 사회의 필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사회는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새롭게 조직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그 조직이나 위상이 아직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말 그대로의 협의체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 각각 자국어 도메인 서비스 개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용하는 자국어도메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입력한 도메인을 영문으로 변환시켜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응용 프로그램에, 혹은 도메인 네임 서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이들 다국어 도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국어 도메인을 인

식할 수 있는 검색기를 사용하거나 전 세계의 도메인 네임 서버가 이들 다국어 도메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국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국어 도메인이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에서는 지역별·언어별 협의회를 결성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세계화시대의 언어민족주의의 문제를 정보화전략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98년 발생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은 이러한 한글민족주의의 현대적 발로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2000년 이래 한글도메인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위의 아래아한글 살리기 운동이 형태를 달리하여 나타난 또 다른 언어민족주의의 발로라는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이 두 사례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정보화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세계화시대의 언어민족주의가 갖는 전략적 시사점을 이 글에서 설정한 이념, 이해, 제도의 틀을 염두에 두면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글사용을 중심으로 한 두 사례는 기술과 경제를 앞세운 다국적 기업의 구조적 지배를 이겨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언어민족주의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적어도 한국사회의 문화적 독특성은 이러한 언어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운동에서 평상시에는 발견할 수 없는 힘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둘째, 정보화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이념적 요소들을 활용하더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될 점은 그 시도가 '열린 민족주의'의 발상에 입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운동의 사례는 한컴 또는 넷피아의 기업전략으로서 애국심에 호소했던 '닫힌 민족주의'의 경향이 다분히 있었다. 끝으로, 이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다시 말해 세계표준의 동향을 주시하고 즉각적이



면서도 개방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병행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요컨대, 세계화시대를 헤쳐 나갈 정보화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정보화의 분야도 기술·경제의 논리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의 논리가 얽혀서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 제 1 장 서 론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를 맞아 자본, 노동, 상품, 기술 등이 국경을 초월해 자유로이 이동하게 되면서, 생산과 금융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수렴(convergence)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세계화의 영향은 경제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글로벌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문화의 세계화는 국가와 사회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인이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글로벌문화(global culture)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수백 년간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해온 근대적인 민족주의(nationalism)도 불가피한 변화를 겪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무차별적인 성격에 대한 반론이 최근 들어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경제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무차별적 세계화에 대한 반(反)세계화 운동의 저항이 최근들어 거세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시애틀과 2001년 도하에서 열렸던 WTO 회의 당시 발생했던 반세계화 시위나 2001년 벨기에 EU 정상회담 당시의 반세계화 운동, 그리고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의 환경운동 등이 의미있는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시장경쟁의 논리를 앞세우며 침투해 들어오는 다국적기업들의 횡포에 맞서는 각 국가내의 시민사회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무차별적 세계화에 대한 반론은 문화의 영역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20세기 후반이래 미국의 대중문화와 서구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대변되는 글로벌문화의 등장에 대한 비서구권 사회의 문화적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화의 과정은 문화적 정체성의 획일화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사회들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부각시키고 상호확인케 하는 계기를 제공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화의 진전은, 한편으로 근대적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글로벌 정체성(global identity)의 출현을 예견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적 동질화의 과정에서 개별 사회와 문화의 고유한 요소들이 차별화되는 계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2001년에 발생했던 9·11 미국 테러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 더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언어민족주의(linguistic nationalism)'라는 개념적 틀을 통해 기술·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무차별적 세계화에 대응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저항양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Anderson 1983; Deibert 1997). 굳이 언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화의 와중에 자기변화를 겪고 있는 민족주의의 모습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언어가 일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민족의 경우 오랜 역사에 걸쳐서 한글이라는 동일한 언어와 문자체계를 공유해 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한글은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적응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가장 격렬하게 논쟁이 붙었던 영역이 바로 한글사용의 문제이었던 점을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 말 개항 이래의 국한문병용을 둘러싼 논쟁이나 20세기 후반 세계화의 맥락에서 제기되었던 영어공용화 논쟁 등이 그 사례들이다.

또한 언어를 중심으로 세계화시대의 민족주의를 살펴보려는 문제의식은 정보화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을 모색하려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관심사와도 일맥상통한다. 사실 기존의 산업기술(industrial technology)과 다른 정보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의 처리를 그 기술적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술의 영역에서 기술에 구현된 언어의 정치적·사회적 성격을 둘러싼 지적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수렴과 동질화로 대변되는 세계화의 논리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정보기술 분야에서도 언어상의 차이를 둘러싼 언어권간의 주도권 싸움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여기서 본 연구가 착안하는 바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표출되는 '세계언어(global lan-

guage)'와 '국지언어(local language)'의 갈등이 무차별적 세계화에 대한 언어민족주의적 대항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세계화시대 민족언어체계의 활용문제는 정보화전략의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그 적실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탐색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풀어감에 있어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이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두 가지의 사례에 주목한다. 첫 번째 사례는 1998년 6월 한글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발생했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다.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워드프로세서인 아래아한글의 개발업체였던 한글과 컴퓨터(이하 한컴)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로부터 약 2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아래아한글의 후속버전 개발을 포기한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일반에 알려지자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라는,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한 국민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MS로부터 투자유치를 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아래아한글 사용자들은 발끈했고, 곧이어 소위 "아래아한글살리기국민운동본부"를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컴을 위기로 몰고 간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품 구매운동이 일어났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글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결국 이러한 국민운동이 전개된 지 한달 만에 한컴은 MS의 투자를 거부하고 자립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이다.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2000년 12월 MS와 계약을 맺고 있는 리얼네임즈(realnames)가 한글 키워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한글 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국내업체인 넷피아는 리얼네임즈의 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적극 활용하면서 시장의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여나간다. 그러한 와중에서 넷피아의 주도로 인터넷 주소의 한글화에 대한 운동이 촉발되고, 2002년 1월에 와서 각 사회단체가 연합하는 형태로 한글인터넷주소추진총연합회가 출현하면서 운동은 보다 구체화된다. 흥미로운 것은 넷피아는 이러한 운동의 기저에 깔려

있던 한글민족주의의 정서를 기업마케팅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펼쳤고, 이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네티피아는 운동의 과정을 통해서 한글 인터넷 주소화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한글 키워드 서비스가 국내업체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루어 낸다.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과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세계화시대의 언어민족주의가 갖는 정보화 전략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한글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했던 문화적 차원의 이 두 운동이 일정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산업이나 한글도메인 분야의 정보화 전략이 이렇게 정서적이고 운동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파악될 수 없는, 보다 심층적인 정치경제학적 동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은 거의 대부분이 영어 알파벳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영어가 정보기술의 세계에서 언어의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s)'로서 군림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세계에서 한민족의 고유언어로서의 한글에 기반한 정보화전략의 추진은 효과적인 기술적 매개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영어기반 정보기술체계의 글로벌한 논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호환성(compatibility)의 확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기술 분야에서 '달린 민족주의적 발상'에 기반을 둔 선부른 한글화의 추진은 정보기술의 세계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시대 민족언어체계의 활용문제는 '운동'의 논리를 넘어서는 '시장'과 '정책'의 변수를 고려하는 정보화전략의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더 냉철하게 그 적실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결과를 산업정책이나 산업구조 및 기타 산업 관련 제도 등의 제도적 요인에 의거하여 설명하는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전통에 입각하였다(Kazenstein 1978; Hart 1992). 특히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산업과 다국어도메인 분야에서 세계표준을 둘러싼 경쟁에서 기

술을 매개로 한 세 변수, 즉 이념(ideas), 이해(利害, interests), 제도(institutions) 등의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정보화 분야에서의 한글민족주의가 갖는 정치경제적 동학을 파악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로 정치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주목하는 기존의 논의는 이해(利害)의 극대화를 노리는 합리적 선택에 기초한 제도주의(rational-choice institutionalism)나 제도 자체의 역사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Kathleen Thelen and Sven Steinmo, 1992).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들이 기반으로 하였던 이해(利害)와 제도의 두 변수뿐만 아니라 이념 또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변수를 포함하여 정치경제를 보는 새로운 제도주의적 이론틀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나 역사적 제도주의와 구별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이론적 분석틀의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구성적 제도주의(constitutive institutionalism)'라고 할 수 있다(Leander 2000; 김상배, 2001a, 2002a, 2002b).<sup>1)</sup>

이러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세계화시대의 언어민족주의와 정보화전략을 탐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언어민족주의의 이론과 역사적 형성과정을 서구의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 형성과정과 한국의 한글창제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구의 국민국가 형성에서 어떻게 국어(national language)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어가 지방어와 국제어와는 어떻게 경쟁하여 생존하였는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훈민정음을 창제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적 언어민족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근대 국민국가 성립기에 걸쳐서 한글민족주의가 어떻게 구체적인 민족운

1) 구성적 제도주의가 기존의 제도주의 분석틀과 대비되는 특징은 이념 또는 아이디어라는 변수의 독립변수적 성격을 모색하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분석틀은 향후의 이론적 정교화 작업을 통해 더욱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동의 양상으로 표출되었는가를 독립신문의 창간과 한글전용운동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글워드프로세서와 한글민족주의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한글민족주의의 발로라는 차원에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전개를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단순히 운동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없는 복합적인 논리를 밝혀내는 출발점으로 삼았다. 먼저, 이념의 차원에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 그 자체의 논리와 전개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기업의 이해(interests)라는 차원에서 MS와 한컴간에 벌어진 워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표준경쟁을 검토하였다. 특히 완성형과 조합형간의 한글코드 문제와 OS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컴의 기업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한글코드의 표준화 정책이나 한국의 지적재산권 레짐을 살펴보므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의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제4장에는 한글도메인과 한글민족주의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한글인터넷주소운동에 담겨있는 의미를 사회문화논리를 넘어서는 정치경제적 차원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먼저 이념의 차원에서 한글인터넷주소운동 그 자체의 논리와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술의 영역에서 벌어진 다국어 도메인 관련 언어코드의 표준화 문제와 한글 키워드서비스를 둘러싼 리얼네임즈와 넷파아의 표준경쟁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다국어 도메인을 둘러싼 국제적 차원과 각국 차원의 정책 및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므로써 다국어 도메인과 관련된 인터넷 거버넌스의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끝으로 제5장의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를 분석틀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화시대의 언어민족주의에 임하는 정보화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제 2 장 언어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민족은 일반적으로 ‘공통의 언어, 지역, 경제 생활 및 공통의 문화로 표현되는 심리 상태를 토대로 형성된 역사적으로 구성된 공통 사회’로 정의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이 스스로를 ‘민족’으로 자각하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며, 정치적 의미에서 오래지 않은 일이다(홉스봄 1994). 언어민족주의는 언어를 근대 민족국가 또는 근대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는 사상을 가리키며, 언어민족주의 운동은 민족어의 보급과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sup>2)</sup>

서구와는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한 한국에서도 언어민족주의의 표출이 근대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표출 양상은 한민족의 종족적 단일성이라는 특성 및 중화 문화권에서의 오랜 역사적 경험, 제국주의 침략의 경험과 같은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 따라 독자성을 지닌다. 언어민족주의가 구체적인 운동으로 드러난 19세기 제국주의 침략기의 독립신문 창간, 20세기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의 한글전용운동,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 한글인터넷주소운동 등을 통해서 한국 언어민족주의의 독특한 표출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

2) 언어와 민족의 관계를 불리불가분한 관계로 주장하는 언어민족주의적 관점은 언어와 민족을 동일시하는 헤르더적인 언어관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Hobsbaum 1990). 또한 언어민족주의를 민족주의의 하위범주로서 민족적 단일체를 지향하는 민족주의가 그 목적을 위해 언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의 측면으로 파악하는 시각은 피쉬만(Fishman)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피쉬만은 제 3세계 국가들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언어와 민족의 관계가 민족주의 운동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민족적 단일체를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이용하는 측면과 ‘민족주의’를 명분으로 공용어의 채택 및 정비를 정당화시키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Fishman 1972).



## 제 1 절 근대 언어민족주의의 형성

언어민족주의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날 ‘국어’로서 영어, 불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 등의 형성을 살펴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날 인정하고 통용하는 각국어의 기원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을지라도 공식적인 국어로서의 위상 획득은 최근의 일로,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때를 같이 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국제어 및 지방어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이며, 그 국민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다.

먼저 근대 문명을 주도해 온 서구에서의 국어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자. 근대 이전의 중세 서유럽은 오늘날처럼 여러 국가가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기독교 공동체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중세사회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마르크 블로흐(Marc Bloch)에 따르면 중세 서유럽에서 “그것을 통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유일한 언어는 라틴어였으며”, 여기에서 ‘유일한’의 의미는 다른 어떤 언어도 가르칠 가치가 없었다는 뜻으로 라틴어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Bloch 1961). 그 이유는 기독교의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중세사회를 지배한 정치-종교체제가 기독교체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문자를 사용하는 지식인들 대부분이 교회관련자들이었기 때문에 라틴어의 독점적 지위는 확고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16세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페브르(Febre)와 마틴(Martin)에 따르면 파리에서 1501년에 출판된 88권의 책 중 80권이 라틴어로 쓰여졌던 것에 반하여 1575년 이후에는 대다수의 책들이 프랑스로 쓰여졌다(Febvre & Martin 1976).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종교개혁으로 인한 라틴어본 성경 및 교황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도전과 민족국가로의 분열이 있었다. 반동 종교개혁 기간 동안 라틴어가 일시 복귀하는 시기가 있었으나 범유럽지식인들 사이에서 라틴어의 헤게모니 종말은 불가피한 추세가 되었다. 17세기에 홉스(1598~

1678)는 라틴어로 글을 썼기 때문에 대륙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던 반면에 셰익스피어(1564~1616)는 지방어(영어)로 썼기 때문에 영국해협을 넘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거의 같은 시기에 도버해협을 건너 프랑스에서도 데카르트(1596~1650)와 파스칼(1623~1662)이 대부분의 저작을 라틴어로 썼다.

그러나 17세기 중반으로 가면서 라틴어의 독점적 지위는 흔들리게 된다. 볼테르(1694~1778)의 경우 거의 모든 작품을 프랑스어로 썼다. 그래서 “1640년 이후 점점 소수의 책이 라틴어로 나오고, 더욱 더 많은 책이 지방어로 나오면서 출판은 더 이상 ‘국제적’ 사업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Febvre & Martin 1976). 한마디로, 라틴어의 몰락은 옛 신성한 언어에 의해 통합된 신성한 공동체들이 점차 분해되고, 복수화되고, 영토화되는 보다 큰 과정을 예시해 주고 있었다(Anderson 1983). 중세 기독교공동체가 붕괴되고 근대국제질서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1648에 체결되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 시기 근대국가들의 형성과 함께 국제어로서의 라틴어의 위상은 축소되고 개별 국가의 지방어들이 일정한 영토 내에 주요 언어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어가 국제어인 라틴어를 대체해가는 과정은 라틴어 자체의 비어화(秘語化, esotericization)와 종교개혁에 1차적 원인이 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교회 문에 그의 논제를 못박아 붙였을 때, 그것은 독일 번역본으로 인쇄되었다. 또한 1520~1540년의 20년 동안에 1500~1520년 기간의 3배나 가까운 많은 책들이 독일어로 출판되었다(Febvre & Martin 1976). 출판인쇄술의 발달과 인쇄자본주의는 신교가 지방어를 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어는 확장되고 그 위상도 강화되어 갔다. 인쇄업자들은 포화된 라틴어 엘리트시장을 넘어서서, 단일어 사용자인 대중들에 의해 대표되는 잠재적인 대규모 시장을 겨냥하게 되었다. 물론 개혁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자 라틴어 출판이 일시적으로 활기를 띠었으나 17세기 중엽까지 이 경향은 쇠퇴하였고, 인쇄업자들은 값싼 지방어판 책을 만드는데 더욱 더 생각을 돌리게 되었다. 신교와 인쇄자본주의의 연합은 값싼 대중판들을 개척하면서 곧 새로운 독자층을 창출하고 동시에 이들을 정치적 종교

적 목적에 동원하였다(Anderson 1983).

지방어의 보다 적극적인 보급은 중앙집권화의 도구로서 지방 행정어를 보급시키려는 사람들, 즉 절대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영국의 경우 노르만 정복 이전에 궁정, 문학, 그리고 행정에서 사용된 언어는 앵글로색슨이었지만, 다음 1세기 반은 거의 모든 왕실 문서가 라틴어로 작성되었으며, 1200년과 1350년 사이에 국가 라틴어는 노만 프랑스어로 대체되었다. 외국인 지배계층의 프랑스 언어와 복속된 백성들의 앵글로 색슨어가 서서히 융화되어 초기 영어를 낳았으며, 1362년 이후 새롭게 형성된 초기영어가 궁정의 언어가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좀 더 늦은 속도로 유사한 운동이 일어났다. 중세불어는 통일된 언어가 아니라 지방마다 상당히 다른 많은 지방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더구나 교회, 행정, 교육의 공용어인 라틴어에 비해 불어는 여전히 속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왕권의 점진적인 강화와 함께 파리 부근의 프랑시앵어가 불어로 정착되어 나갔고, 16세기 중반부터 프랑스와 I 세가 1539년에 선포한 고틀레(Villers-Cotterets) 칙령에 의해 프랑스어가 라틴어 대신 행정언어로 사용되면서 공용어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계몽군주인 조셉 II 세가 1780년대에 국어를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중세라틴어를 사용하는 귀족의 행정부로는 대중에게 유리한 어떤 사업도 실행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자기 제국의 모든 부문을 연결하는 통합어의 필요성에서 그는 독일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독일어는 방대한 문화와 문학작품을 거느리고 있으며 제국의 모든 지방에 걸쳐 상당한 소수집단이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Anderson 1983). 즉, 제국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얻기 위해 독일어의 사용정책을 장려한 것이다.

지방어를 통한 지역적 국가공동체의 추진은 공동체의 재구성과 그에 따른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다시 말해, 국민국가 단위로서의 정치적 공동체의 형성과 국민의식의 확립의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국어의 형성은 무엇보다 전국민의 동질화와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전국민이 같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갖

는다. 즉, 그 구성원에게 이전의 계급에 따른 언어와 문자의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간격을 줄이고 단일한 정치적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갖게 해준다.

중세 기독교적 공동체의 붕괴와 더불어 대두된 정체성의 혼란을 새로운 민족국가 단위의 공동체로 재구성됨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공통의 언어와 문자는 민족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각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특히 활자어와 그 주요 매체인 신문이나 소설 등은 '민족'(nation)의식을 형성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인쇄물과 신문을 통해 같은 언어의 장(language-field)에 있는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사람들은 동료독자들로서 세속적이며 특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민족으로 상상된 공동체의 싹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근대 민족 형성에 국어는 필수적인 것이 된 것이다(Anderson 1983).

지배자의 관점에서 국어는 통치에 대단히 효율적이었다. 프랑스처럼 민주주의적 평등주의 관점이 아니라 통치의 효율성 때문에 국어의 형성과 보급 확대가 추진되었다. 무엇보다 행정어의 통일으로써 정부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취체제를 만들 수 있다. 법이나 행정체계의 전국적 동질화는 자본가에게도 유리한 시장조건을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중앙정부는 자본가의 지원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 또한 내부의 동질성에 기초한 국민통합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국가는 국어를 마키아벨리적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보급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국가 형성을 핵심내용으로 포함하는 근대화과정은 기본적으로 '민족어'를 매개로 한 거주민의 동질화 및 표준화를 동반하였다(Anderson 1983, Hobsbaum 1990).

## 제 2 절 한글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한국의 언어민족주의는 한민족의 종족적 단일성이라는 특성 및 서구와는 다른 역사적 경험 등에서 차별화된다. 수천년간의 한자 문화권에서의 역사적 경험, 근대국

가 성립기의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적 경험 등은 언어에 있어서도 남과 다른 고유한 것을 강조하는 경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났다. 고유한 것으로서의 언어는 “말”과 “글”을 구분하지 않은 채 표기수단으로서의 글자까지를 포함한 언어민족주의로 나타났다. ‘한글’이라는 우리만의 글자를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한글에 민족주의적 정서를 부여하는 한편 언어와 글자는 동등하게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고 봄으로써 글자를 문화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도구로 파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중세 서구의 기독교공동체에서 라틴어가 국제어로서 사용되었던 것처럼 동아시아의 유교문명권에서는 한자가 국제어로서 사용되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월남은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한자가 공식문자로서 우대되었고, 자국어는 지방어로서 천대받았다. 한자는 동아시아에서 국제어로서 위상을 확보하면서 지식인들의 소통수단으로서 작동하였다. 중세 서구에서처럼 일반 대중들은 문자생활에서 소외되었고, 지식인들은 한자를 통해 지배권력을 강화하였다.

조선에서는 세종대왕에 의해 1446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문자체계를 제정, 반포한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도 주요 문자생활은 한자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한글로 이를 대체하려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세종대왕은 한자를 대체할 국어로서 한글을 창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을까?

우리나라의 어음(語音)이 중국과 달라 한문과 서로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실정을 다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이것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훈민정음 서문에서 세종대왕의 취지는 애민(愛民), 실용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자가 어려워 서로 소통이 하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쉬운 문자를 만들어 쓰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편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이와 같은 의지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 반대의 주장은 요즘 국제어인 영어

를 우리나라의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문명의 언어로서 한자를 고집하고 지방어로서 한글의 ‘장기적인 비실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집현전 부제학이었던 최만리 등은 훈민정음의 창제를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의 실록에 나타나 있다.<sup>3)</sup>

만일 결승문자를 쓰던 시절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한문을 모른다면, 고식적인 계책으로 언문을 빌려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른 의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식적인 계책으로 언문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좀 더디고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계책으로 중국에서 통행하는 문자를 익히는 것이 낫다’고 말 할 것이다. … 언문만 알아도 관리로 출세할 수 있게 된다면, 수십년 뒤에는 한문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줄어들 것이다. 비록 능히 언문으로 관리의 일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성현의 문자를 알지 못한다면 답을 마주하고 있는 듯이 무식하여 사리의 시비에 어두울 것이다. 한갓 언문만 공부한다면 장차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나라가 오랜동안 공을 들여온 우문(右文)정책의 효과가 점차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두렵다.

결국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은 반포되었으나 오랜 동안 ‘언문’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세종대왕은 『삼강행실도』,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등의 한글 저작과 불경과 유교경전의 언해 사업 등 훈민정음의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장차 한글로 한문을 대체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훈민정음의 창제의도는 애민과 실용이요, 그것을 통한 백성의 교화에 있었던 것이다. 세종은 중국 문명 중심의 관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어로서 한자를 지배계층에서 계속 사용하되 이에 소외된 일반 대중들의 편리를 위해 지방어로서 한글을 보완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한글은 세종 이후에 지방어 차원에서 존재해오다가 중화제국의 몰락과 함께 그 국제어였던 한자가 동시에 위세를 잃자 어문생활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요컨대, 한자라는 국제어와 한글이라는 지방어가 전혀 비대칭적 관계로 공존하다가 20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부터 그 위상이 역전되기 시작

3) 『조선왕조실록』, 세종26년 2월 경자조

한 것이다.

조선에서 지식인들에 의해 한글이 적극적으로 평가되게 된 데는 탈중화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 마치 서구에서 중세적 기독교공동체 의식을 떨치고 개별 민족국가의식의 형성과 함께 지방어가 국어로서 부상하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국제어인 한자가 표의문자로서 일상 언어생활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어의 승격은 일단 한자와 함께 쓰이면서 어문일치를 이루게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대중서로서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로 평가되는 유길준의 『서유견문』의 서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유길준 1889탈고; 1995출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둘러보건대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른 까닭에 문자 또한 같지 않으니, 무릇 언어란 사람의 생각이 음성으로 나타난 것이요, 문자란 사람의 생각이 일정한 형상으로 나타난 것인 까닭에 언어문자는 나누면 둘이요, 합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우리 한글은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신 문자요, 한자는 중국과 두루 쓰이는 문자인 바, 나는 오히려 순한글만을 사용치 못했음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처지인 것이다.

‘국어’ 사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용적인 목적 이외에 탈중화의식 및 민족의식의 형성과 관련 있었는데 박영효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먼저 인민에게 국사·국어·국문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본국의 역사·문장을 가르치지 않고 단지 청나라의 역사와 문장을 가르치는 까닭으로, 인민이 청나라를 근본으로 삼아 중시하면서도 자기나라의 서적을 알지 못하는 데 이르고 있으니, 이것을 가리켜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4)</sup>

실제로 유길준은 ‘국문’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어문법을 정리, 최초의 문법책인 『조선문전(朝鮮文典)』, 『대한문전(大韓文典)』 등과 어문관계 문헌을 편찬하여 국문의 보급에 힘썼다. 유길준 뿐만 아니라 박영효, 윤치호 등의 개화세력은 한글 중심의 민중 언어 생활에 주목하고 이를 자신들의 정치 구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4) 박영효, 「조선내정개혁에 관한 건백서」(1888), 『일본외교문서』, 21권, p.307

이들은 문자 체계를 개혁해서 새로운 사회 체제에 적합한 언어 구조를 만들자는 생각을 갖고 신문 발간과 근대 학교 교육을 한문이 아닌 한글로 함으로써 민중지식 기반을 구지배 세력으로부터 단절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이러한 정치적 의지는 갑오개혁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1894년 12월 17일 내려진 칙령 1호 공문식 제 14조에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으로 본을 삼되, 한문을 부역하거나 국한문을 혼용할 수 있다”라고 공포하였다. 이는 한글을 새로운 개혁 정부가 사용할 공식 문자인 ‘국문’으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갑오 개혁 조치 이후에도 한글 전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官報」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공문서들이 국한문 혼용체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혁을 중심으로 한 과도기의 언어사회적 기반이 한자도 아니고 한글도 아닌, 국한문 혼용 체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뒤이어 ‘독립신문 창간’ 및 ‘한글 전용 운동’의 대중적 언어민족주의 운동이 나타나게 된 기반이 된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 약 450년 만에 지방어로서의 위상을 극복하고 민족어로서 대우받게 된 것이다.

한글이 국어로서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독립신문』(1896~1899)에서 이다. 『독립신문』은 순한글로 쓰여진 것일 뿐만 아니라 신문이라는 형식으로 널리 보급되어 한글의 국어화와 민족의식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독립신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독립신문이 제호를 ‘독립’신문이라고 한 것 부터가 중세 질서의 해체에 따른 민족의 독립을 상징하고 있다. 청일전쟁으로 중국이 패퇴함으로써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독립’됨을 경축하고, 이 독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당시의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귀천이 다 보게 함이라. 또 국문을 이렇게 구절을 떼어 쓴 즉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먼저 배워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배우는 법인데 조선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배우더라도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국문을 잘 하는 사람이 드물이다. 조선국문하



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국문이 한문 보다 얼마나 나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는 배우기가 쉬우니 좋은 글이요, 둘째는 이 글이 조선 글이니 조선 인민들이 알아서 백사를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두 보고 알아보기가 쉬울 터이라...<sup>5)</sup>

즉, 『독립신문』은 ‘독립’의 상징이자 독립유지의 조건으로서 국문, 즉 한글 사용을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것은 전국민이 언어와 문자생활을 같이 함으로써 국민적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민족주의의 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독립신문』을 한글전용으로 발행하여 “상하귀천이 다 보게 함”은 문자의 평등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독자이자 장차 자유 독립의 ‘국민’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혀져야 할 것이다. 국민적 동질성은 국민들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므로 『독립신문』은, 더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독립신문에 이르러서 한국은 비로소 근대국민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신문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한글을 보급함으로써 대중적으로 공동의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최초의 민주주의적 민중운동으로 볼 수 있는 만민공동회 활동도 독립신문이라는 공동매체를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민중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게 한 것은 바로 공동의 의사소통 매체로서 국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독립신문 발간 이후 한글사용, 또는 적어도 국한문혼용이 대세를 이루어 지식인들의 저작활동도 순한문체를 돌아가는 예는 드물게 되었다. 그러므로 독립신문의 발간은 한국사에서 ‘문화혁명’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언어민족주의 운동으로 보아야 한다.

일제시대를 겪으면서도 민족적 동일성을 확보하고 일제와의 차별성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이 한국어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국의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그 사용은 현재적, 또는 잠재적 자주와 독립의 주요 상징이 되는 것이다.

---

5) 『독립신문』, 1896년 4월 7일, 논설

일제 침략기의 언어민족주의 운동은 주시경에 의해 질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주시경은 한글 보급 운동의 지도자로서 1908년 국어연구학회를 창립하고 그 산하에 강습소를 두어 운영해 나갔다. 국어연구학회는 1911년 '배달말글몸음(조선언문회)'으로 회명을 바꾸었고 이와 함께 그 산하에 있던 강습소도 1911년 '조선어 강습원'으로 바뀌어 초등, 중등, 고등, 연구과로 나뉘어 1917년 3월까지 7년간 운영되었다. 이 시기 언어민족주의 운동의 양상은 한글 보급 및 한글의 지위향상에 무게가 주어져 있었다. 조선언문회는 1916년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않다가 3·1운동 이후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이를 계기로 1921년 조선어 연구회의 창립을 맞게 된다. 조선어 연구회의 활동에 따라 이시기의 언어민족주의 운동은 맞춤법, 표준어 제정 및 사전 편찬 등 언어와 문자의 근대화라는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된다. 그 외 교재 편찬을 통한 한글 보급 운동 동인지 「한글」 및 기관지 「한글」 편찬 등을 통해서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다가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탄압을 받으면서 해방시기까지 활동이 중단된다.

제국주의 침탈기의 한글 보급 및 한글 정비 운동은 해방 후 본격적인 근대국가 형성기의 한글 전용운동으로서의 언어민족주의 운동의 바탕이 된다. 주시경의 제자인 최현배 등에서 한글 전용 운동의 맥이 이어진 것이 이러한 사실을 드러낸다. 해방 이후 한글 전용 운동은 초, 중등 학교 국어 교재 편찬, 국어 교사 양성 등 교육을 통한 한글 보급 운동을 통해 그 전제조건을 만들어 나가다가 교과서에서의 한글 전용 범제화를 통해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교과서에서 한글을 전용하도록 범제화하는 것은 1945년 12월 8일의 일인데, 미군정하에서 교육 체제를 만들었던 조선교육심의회 총회에서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초등, 중등 학교의 교과서는 전부 한글로 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한자를 도림(괄호)안에 넣을 수 있다”고 결의되었다.

이러한 결의안은 조선어학회의 한글전용법 제정 운동을 통해서 1948년 10월 1일 국회 78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형태로 단서가 붙은 수정안으로 제안되어 가결되었고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법률 제6호로 공표되었다.

정부수립기의 한글전용법은 미군정기의 교과서에 제한되었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일반적 글자 생활 전범위로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법이 결의되자 조선어학회는 각 언론사를 예방하거나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한글 전용 운동을 펼쳤다. 한글학회에서는 1949년 6월 한글 전용법 실천에 대응할 단체로서 '한글 전용 촉진회'를 창립하여 촉진회를 중심으로 한글 전용 촉진 거리 방송과 왜식 간판 없애기 지도 선전, 한글 선전 기념 방송과 강연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그러나 동년 11월 5일 국회에서 한자 사용에 대한 결의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1950년 1월 최현배가 문교부 편수국장이 되면서 교육 한자 1,000자를 괄호 안에 넣어 교사들의 교수에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한글 전용을 손상시키지 않는데 성공한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글학회의 한글 전용 운동은 중단이 되었다가 1955년 3월 「한글」지가 속간되고 한글학회의 활동이 재개된 이후 한해 반이 지난 1956년 10월 28일 한글 전용 촉진 성명서를 내면서 다시 표면화되었다. 이 성명서는 한글 전용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청 공문서나 민간의 한글 사용이 극히 국한되어 있음을 적시하고 모든 관공서 공문서와 언론의 한글 전용을 촉구하였다. 이 시기 한글 전용 운동의 주된 지향은 1948년 제정된 한글 전용법의 단서를 철폐하고 전용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1957년 10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글날 담화에서 언론에서의 한글 전용이 필요함을 밝혔고, 이에 한글학회는 그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전용법의 단서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 '한글 전용 실현 방안 3개항' 건의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한자 사용에 제한이 없던 신문, 잡지 등에 한글 사용을 권고하려는 목적에서 임시 허용 한자 1,300자를 문교부로 하여금 제정하도록 했다. 이에 문교부는 동년 12월 6일 열린 117회 국무회의에서 '한글 전용법 개정'을 골자로 한 '한글 전용 적극 추진에 관한 건'을 제안하여 결의를 얻었다(허만길 1994). 이어서 정부는 이듬해 1월 1일부터 일체의 공문서를 한글로만 쓸 것을 지시한 '한글 전용 실천 요강'을 작성하여 12월 29일 대통령의 담화문과 함께 시달했다. 그러나 '간행물은 반드시 한글로 한다'는 실천요강의 항에 대하여 언론의 반대가 거세어 전용법 개정은

유보되었다. 이에 대해 문교부는 1958년 8월 21일부터 27일 사이를 '한글 간판 권장 운동 기간'으로 정하여 한글 간판 써 붙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이 시기 한글학회의 한글 전용 운동은 국가의 언어 정책 노선과 어느 정도 일치해 있었으나 단서 조항 철폐에 실패함으로써 정체되고 만다. 한글 전용의 전제인 한글 보급의 성공으로 완전한 문맹 퇴치를 이룬 사실이나, 6권에 걸친 어휘 사전의 완간에도 불구하고 한글 전용을 목표로 하는 언어민족주의 운동은 정체하게 된다.

한글 전용 운동은 '단일 민족, 단일 국가, 단일 국문'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의 단일성과 글자의 단일성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민족어'라는 심리적 연대감에 호소하는 낭만적 경향이 두드러지는 운동이었다.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한글 전용 운동'은 '한자 전폐'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단순히 한자에 대한 대안적 표기 수단으로서의 한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글자' 및 '영문자'를 포함한 왜래 표기 수단 전체에 대하여 한글을 전용하자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외국 글자에 대립되는 한글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의 한글 전용운동은 외세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한문 전용 논의의 또 다른 중심은 오랜 세월 동안 특권 계급의 소유물이었던 글자를 대중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민중주의적 주장이다. 이는 지배 계층의 언어로서의 한자와 민중의 언어로서의 한글의 대립 관계에 주목한 것으로 독립신문 창간의 정신과 그 맥을 같이한다. 최현배(1954)는 한자 전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의를 "글자의 대중에의 해방을 저지하고자 하는 특권 계급스런 비틀어진 봉건 사상"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한글 전용이 권력의 상징이었던 글자를 일상의 도구로 끌어내리면서 계급간의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한글 전용 운동은 민족 통합의 민중주의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제 3 장 한글워드프로세서와 언어민족주의

1990년대에 들어서 발생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은 한글민족주의의 발로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은 '기술·경제 논리'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공세를 '사회문화논리'를 바탕으로 한 한글민족주의가 대항하여, 한글과 컴퓨터(이하 한컴)의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서를 방어해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견 한글민족주의의 승리로서 비추어질 수 있는, 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운동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없는 복합적인 논리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에 담겨있는 사회문화논리의 저변에 있는 정치경제학적 동학에 대해서 검토한다. 먼저, 이념(ideas)의 차원에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 그 자체의 논리와 전개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이해(interests)라는 차원에서 MS와 한컴간에 벌어진 워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표준경쟁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완성형과 조합형간의 한글코드 문제와 OS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컴의 기업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한글코드의 표준화 정책이나 한국의 지적재산권 레짐을 살펴봄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의 제도(institutions)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 제 1 절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전개

1998년 6월 15일, 한컴의 이찬진 사장은 MS에 회사의 지분 19%를 매각하는 대신에 주력사업인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서의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두 회사간의 합의내용에 따르면, 한컴이 아래아한글 사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MS가 1,000~2,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자본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이

후 구체적인 합의를 거쳐 정확한 투자규모를 결정할 것이지만, MS는 한컴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MS의 한컴에 대한 투자의 주된 목적이 아래아한글의 후속 버전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계약조건이었다. 이로써 1989년 탄생하여 국내 워드프로세서시장에서 누적 시장점유율 약 75%를 자랑하면서 터줏대감으로서의 지위를 꺾기지 지켜온 아래아한글이 함락되는 순간이었다(『전자신문』 1998. 6. 16).<sup>6)</sup>

이러한 계약내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국내의 아래아한글 사용자들은 발끈했고,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아래아한글을 살리기 위한 거국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운동이 조직화되었으며, 소위 '아래아한글살리기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정식으로 발족되기에 이른다. 이와 함께 한컴을 위기로 몰고 간 주요요인의 하나로 지목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품구매운동도 일어났다. 결국 이러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 전개된 지 한 달여 만에 한컴은 운동본부가 제시한 투자를 받아들이는 대신 MS와의 계약을 포기한다는 뜻을 표명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특기할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ims 1999). 거대한 다국적 기업인 MS의 공세를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나서서 막아냈다는 점에서 그러하였고, 운동의 기저에 깔려 있던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서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였다. 당시 아래아한글의 몰락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문제로서 인식되지 않았다.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더 나아가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상징인 한글의 존재가 위협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해, 아래아한글은 한글의 창제원리를 가장 잘 구현한 국산 워드프로세서이며 한글공동체 전체의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6) 한국갤럽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후반 아래아한글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78.2%(1997년), 75.7%(1998년), 71.0%(1999년)에 달한다. 같은 기간의 MS워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6.7%(1997년), 14.3%(1998년), 18.0%(1999년)이며, 기타 워드프로세서가 15.1%(1997년), 10.0%(1998년), 11.0%(1999년)에 달하고 있다.

맥락에서 한컴이나 아래아한글을 살리는 것은 곧 한글 자체를 지키는 것이라는 이른바 ‘한글민족주의’의 정서가 표출되었다.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한국의 컴퓨터산업 내지는 소프트웨어산업에 한글민족주의의 정서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980~90년대에 걸쳐서 아래아한글은 한컴 소유의 재산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을 장악한 MS에 대항해서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국민경제적 재산으로서 부각되었다. 게다가 아래아한글을 한국문화의 상징인 한글 자체와 동일시하는 경향마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은 한글을 구현하는 워드프로세서는 한국의 토종 기업이 담당해야한다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컴과 아래아한글의 성장사를 살펴보면, 한컴 자신이 나서서 이러한 한글민족주의의 정서를 교묘히 이용하는 마케팅전략을 구사하였다.<sup>7)</sup>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MS와 한컴간에 체결된 계약이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당시 한국의 언론들은 MS와 한컴간의 계약을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위기,” “한국 소프트웨어산업 국치의 날,”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사망선고,” “언어 속국임을 자인하는 일” 등과 같은 민족주의적 언사를 구사하면서 보도하고 있었다(『전자신문』 1998. 6. 17; 정은아 1998c). 특히, 아래아한글 사용자, 소프트웨어 업계, 용산전자상가 등과 같은 유통업체, 시민단체, 학회, 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컴 사태에 대한 저항적 여론이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여론은 곧 구체적인 운동의 형태로 비화되었다.

예를 들어, 하이텔, 나우누리, 두리넷, 천리안 등 국내 주요 PC통신의 네티즌들이 나서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한글학회 및 기타 한글 관련 단체들이 나서서 ‘한글문화지킴이총연합회’를 결성하고 결의문을 발표하였다(『전자신문』 1998. 6. 25). 이러한 대항의 움직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벤처기업협회가 앞장서서 벌였던 ‘1인당 1만원내기 운동’ 또는 ‘국민주 모금운동’이었다.

---

7) MS 관계자와의 인터뷰.

이러한 운동들은 '아래아한글살리기국민운동본부'의 결성이라는 형태로 결집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국민서명운동을 벌여서 불과 열흘 사이에 13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한정호 1998b). 당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전개과정

일지	사건의 진행
6. 15	한컴(대표 이찬진)은 아래아한글 사업 포기 조건으로 MS사로부터 1천만~2천만 달러 유치 계약 추진 발표
6. 16	하이텔 등 4대 PC통신의 네티즌이 주도가 되어 '아래아한글살리기서명' 확산
6. 19	한국벤처기업협회(회장 이민화), 한컴을 살리기 위한 1인당 1만원내기운동 전개 발표
6. 21	공정거래위원회, 한컴과 MS간 투자계약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조사 착수 발표
6. 22	벤처기업협회,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본부 결성, 국민주 운동전개 선언
6. 24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이민화)를 중심으로 운동주체 통합
6. 25	(주)나모인터랙티브, 나눔기술 등 아래아한글 개발 중단 전제로 대체상품 '나모한글(가칭) 개발 추진 선언
7. 6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본부, 한컴에 MS사와의 투자협상 중단 촉구 및 한컴 인수를 제의
7. 20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본부의 한컴 인수 합의

운동본부 측은 당시 아래아한글 옹호의 근거로 아래아한글은 사회경제적으로만 보아도 최소한 1조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래아한글이 사라질 경우, 4백만 사용자들의 재교육에 4,000억원(400만명×10시간×10,000원), 약 10억 건의 정부 공공문서를 MS워드로 대체하는 데에도 최소한 1,000억원(10억 건×100원), 아래아한글을 대체하는 신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입하는 데 향후 5년간 5,000억원(1,000만 카피×50,000원)이 든다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운동본부 측은 MS에 의한 한글 워드프로세서시장의 지배가 국내 소프트웨어시장 전체에 대한 지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요컨대, 아래아한



글 포기를 전제로 한 MS의 한컴에 대한 투자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한글 워드프로세서 사용자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계약이라는 것이었다.<sup>8)</sup>

운동이 진행되면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주체는 벤처기업협회가 주도하는 운동본부로 통합되었지만, 아래아한글의 장래와 대안 등과 관련해서는 토론이 진행되어,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입장들이 표출되었다. 먼저, 벤처기업협회 주도의 운동본부 측에서 개진한 주장으로 국민주 모금운동을 통한 한컴의 회생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컴과 같은 시장성 있는 벤처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아래아한글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정부측에서는 문화관광부가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고 있었는데, “아래아한글 포기는 고어처리를 포함한 한글구현에 커다란 문제를 초래하며 이는 국어생활을 비롯한 문화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자신문』 1998. 6. 24).

둘째, 한국소프트웨어컨소시엄 등에서 제기한 주장으로 아래아한글을 살리는 것과 한컴의 명맥을 잇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서 인식하는 입장이었다. 주로 아래아한글 개발에 관여했던 개발사들과 아래아한글 기반 그룹웨어 업체들이 주축이 된 소위 아래아한글맥잇기운동측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MS와 한컴의 계약으로 아래아한글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아래아한글을 뒤잇는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지키자고 주장하였다. 정부측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였던 정보통신부가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아래아한글 사태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시 말해, MS와 한컴의 계약은 민간사업자들간의 문제이며, 이 계약을 통해 아래아한글이 사라지더라도 또 다른 경쟁제품이 시장에 등

8) 한겨레신문 · 진보네트워크 · 서울 YMCA 주최 『아래아한글의 사회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에 수록된 벤처기업협회 김선홍의 발표문, [http://www.hani.co.kr/special/hangultoron9807/b\\_venture.html](http://www.hani.co.kr/special/hangultoron9807/b_venture.html)(1998. 7.)

장할 것이므로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전자신문』 1998. 6. 22).

〈표 3-2〉 아래아한글 사태에 대한 세 가지 입장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본부 및 문화관광부	한국소프트웨어컨소시엄 및 정보통신부	정보연대 및 열린한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아한글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글과 컴퓨터사를 회생시켜야 함</li> <li>· 국민주 모금 운동을 통해 한국 벤처기업의 상징적 존재인 한글과 컴퓨터를 국민기업으로 만들어서 회생시킴으로써 아래아한글도 살릴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아한글을 살리는 것과 한글과 컴퓨터사의 명맥을 잇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아래아 한글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대안임</li> <li>· 아래아한글 사태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과 컴퓨터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래아한글 전용의 hwp 문서포맷을 공개하여야 함</li> <li>· 정보공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아한글과 호환되는 한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문제해결 방법</li> </ul>

끝으로, 열린한글 프로젝트 등에서 주장한 입장으로서 아래아한글을 공공재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접근법이었다. 정보연대와 같은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주장한 바와 같이, 아래아한글의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이며 벤처기업가로 유명했던 안철수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에게 남은 또 하나의 선택은 정부 주도하에 MS로부터 한글의 소스프로그램을 인수해서 정부 산하 소프트웨어 연구소에서 개발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개발방향은 다른 제품과 경쟁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능만 추가하고 대부분의 노력을 버그해결과 새로운 운용체제에 맞게 바꾸는 정도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문화일보』 1998. 6. 20).

아래아한글 사태의 진전은 결국 한컴이 MS의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운동본부 측의 제안을 수용하여 아래아한글을 살리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한컴 측에서 보면, 운동본부 측이 100억원을 제시하고 향후 국민주 모금운동과 1인

당 1만원내기 운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컴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국민기업’ 형태로 다시 발돋움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득실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에 의해서 모금된 자금과 지원보다 더욱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당시의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주는 중압감이었을 것이다. 아래아한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성장해온 한컴이 국내여론을 무시하여 사용자 기반을 잃은 상황에서는 향후 어떠한 다른 사업을 모색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정은아 1998d).

당시 이러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 한국 소프트웨어업계 전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사용자측에서부터 재인식되었으며,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실제로 한컴의 매각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던 1998년 7월부터 9월 18일의 기간 동안, 정부의 불법복제 단속이 강화되어 196업체가 적발되기도 하였다(『한국일보』 1998. 9. 25). 그러나 한컴의 입장에서는 운동본부 측의 제안을 수락하고 정부가 지원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한컴이 안고 있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아래아한글 사태 발생 이후 후속 버전을 제 때에 내지 못함으로써 MS에 시장의 주도권을 내준 아래아한글은 시장에서 점차로 외면 당하기 시작하였다. ‘한글워드안’이라는 후속 버전은 운동본부가 약속한 날짜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00년 10월경에야 출시되었다. 한해 판매량이 100만개를 넘었고 판매 첫 한달 동안에만 20만~30만개에 이르렀던 아래아한글이었지만, 한글워드안의 첫 한달 판매량은 고작 6만여 개에 그쳤다. 이후 ‘아래아한글2002’ 버전이 나왔어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한컴 사태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1998년에 MS가 제시했던 조건으로 아래아한글을 인수하겠다는 기업은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한컴 사태 이후 새로이 등장한 경영진은 한컴을 소프트웨어기업이 아닌 인터넷비즈니스 기업으로 바꾸어 놓았다. 게다가 최근 들어 1998년 당시 운동본부를 주도했던 메디슨(회

장 이민화) 소유의 한컴의 지분이 싱가포르계 기업에 매각되면서 ‘국민기업’ 한컴의 경영권은 사실상 외국계로 슬그머니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한컴이 좌절하게 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치경제적 동학을 MS와 한컴간의 소프트웨어 표준경쟁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제 2 절 한글코드와 소프트웨어 표준경쟁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이면에 존재했던 정치경제학적 동학에 대한 알기 위해서는 한컴이 한글 워드프로세서시장에서 MS와 벌인 표준경쟁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시장에서 양 사간의 경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첫째, 한글코드를 놓고 벌어진 아래아한글과 MS워드간의 경쟁이다. 둘째, 컴퓨터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이하 OS)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응용프로그램으로서의 워드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MS와 한컴간의 비대칭적 경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컴은 OS의 한글코드 지원기능에 순응하기보다는, 한글의 기본원리인 초성, 중성, 종성의 결합원리에 맞는 것으로 알려진 한글코드를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경쟁은 OS의 우위에 바탕을 둔 MS가 채택하였던 사실상의 한글코드가 득세하는 과정이었다.

### 1. 한글코드와 아래아한글

아래아한글은 1989년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다니던 이찬진과 그의 동료들이 처음으로 개발했다. 당시 변변한 워드프로세서도 하나 없던 처지에 아래아한글은 사용자 위주의 편리한 기능과 유려한 글씨체 등으로 순식간에 사용자들을 사로잡았다. 개발 초기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은 이찬진은 1990년 10월에 한컴을 세워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한컴은 설립되면서부터 각광을 받았으며, 이후 급성장을 거듭하였다. 1990년 5,000만원에 불과하던 한컴의 매출은 1991년 10억원으로 뛰었고, 1992년

22억원, 1993년 130억원을 거쳐 1996년에는 221억원을 돌파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아래아한글은 80%에 가까운 사용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각각 10%가량에밖에 미치지 못했던 MS워드와 훈민정음을 따돌리고 국내 제일의 워드프로세서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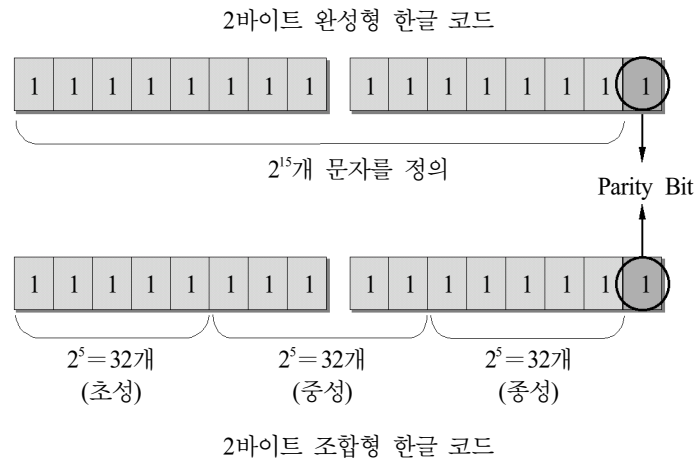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워드프로세서 제품들은 OS의 한글 자동입력 오토마타<sup>9)</sup>를 통해 한글 입출력을 구현하고 해당 응용 소프트웨어 자체 내에는 별도의 모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에 시장에 출시된 아래아한글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한글을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듈 내부에 별도의 한글 자동입력 오토마타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아래아한글을 사용하면 한글 도스가 아닌 영문 도스 환경에서도 한글카드 등을 설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글을 자유롭게 입출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아래아한글의 이러한 특성은 그 당시 사용자들에게는 막대한 편리함을 주었으며, 한컴은 이를 잘 활용하여 아래아한글의 성공을 일구어냈다(오창호 · 주영혁 2000: 106).

또한 개발 당시부터 아래아한글은 한글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방식으로서 조합형 한글코드를 채택하고 있었다. 조합형이란 2바이트 코드 내에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의 글꼴을 각각 5비트씩 할당한 코드체계로서 이러한 글꼴을 조합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다(그림 3-1) 참고). 예를 들어, ‘박’이란 글자의 경우, 자음 ‘ㅂ’과 모음 ‘ㅏ’ 그리고 자음 ‘ㄱ’을 각각 불러와 글자를 만든다. 이러한 방식의 특성상 조합형은 한글의 11,172자와 고어(古語)까지 모두 표현이 가능하였으며, 한글의 기본 창제 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래아한글이 국민적 지지를 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조합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합형은 국제표준기구(ISO)의 국제표준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으며, 따라서 국제적으로 호환성에 문제가 있었다.

---

9) 키보드를 이용한 한글의 자동 모아쓰기 입력방식.

〔그림 3-1〕 2바이트 표준 한글코드의 비교



이에 반해, MS의 소프트웨어는 한국시장에서 도스부터 윈도3.x, 그리고 윈도95 등에 이르기까지 완성형 방식의 한글코드를 사용하였다. 완성형은 글꼴을 미리 만들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놓고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식이다(그림 3-1) 참고). 다시 말해, 완성형은 현대 한글에서 많이 사용되는 2,350자를 코드 내에 넣어 놓고, 필요한 글자 자체를 그때그때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애초부터 2바이트 체계 내에서 완성형은 한글의 11,172자를 모두 담아서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완성형은 ISO가 정한 국제표준을 만족시킨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채택되어 쓰여 왔다.<sup>10)</sup>

사실 MS도 초창기에는 OS의 한글코드로서 조합형 코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MS는 완성형을 보급하였던 당시의 국가 표준코드 정책에 순응하여 조합형을 포기하고 완성형 한글코드를 채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MS의 OS가 완성형을 지

10) 완성형이 표현할 수 있는 글꼴은 2,350자밖에 안되기 때문에 (폐에 ㅍ받침)시콜라' (까에 ㄱ받침)' (또에 ㅁ받침)방각하' 등 일상 문자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글자가 애초부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되어 표현이 불가능하였다. 웹시콜라의 경우는 그래서 상표를 아예 '웹시콜라'로 바꾸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원하도록 개발되는 상황에서 MS워드도 당연히 완성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MS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의 관행상 MS워드의 영어판을 먼저 개발한 뒤 이를 기본으로 일어판, 한글판 등을 개발하였는데, 영어판이 애초부터 완성형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한글판도 완성형으로 개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형의 아래아한글과 완성형의 MS워드는 한국시장에서 워드 프로세서라는 제품상의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상호호환이 되지 않는 한글코드를 바탕으로 한 코드경쟁도 벌였다.<sup>11)</sup> 이러한 코드경쟁의 과정을 보면, 아래아한글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체 내에 한글 자동입력 오토마타를 가지고 OS와는 독립적으로 한글을 구현하는 조합형 방식을 고수하여 왔지만 점차로 완성형을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한글 입력방식을 MS윈도의 한글코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완성형 한글코드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아간 것은 구조적으로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던지도 모른다. 결국 최근의 제품인 한글워디안이나 아래아한글2002에 이르면, 한컴의 워드프로세서 제품은 유니코드를 수용하는 형태로서 완성형으로 수렴하게 된다.

특히 코드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래아한글이 채택하고 있던 조합형이 완성형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장점은 점차로 희석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니코드의 경우를 보면, 형식은 완성형이었지만, 현대 한글 11,172자를 연속된 공간에 모두 배정받는 형태여서, 한글의 자소를 조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였고, 한글고어를 조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려되어 있었다. 게다가 한자도 한·중·일 3국의 표준코드 및 비표준코드를 고려한 27,000여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글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래아한글의 한글코드가 이전에 가졌던, 한글 조합형 표현, 고어표현, 한자 15,000여자 지원 등의 특징들이 유니코드와 비교하여 볼 때 더 이상 장점이 되지 못했다. 결국 유니코드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게 되고, 많은 회사들이 이를 지원하는 추세가 형성됨에 따라 한컴

---

11) 한글코드 전문가와의 인터뷰.

측에서도 완성형인 유니코드를 채택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던 것이다.<sup>12)</sup>

요컨대, 한글 워드프로세서 분야에서의 MS의 약진은 ‘윈텔리즘(Wintelism)’으로 개념화되는, OS에 대한 MS의 구조적 지배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김상배 2001b; Kim and Hart 2002). MS는 OS의 장악이라는 전략적 우위에서 오는 장점을 MS오피스와 같은 자사의 응용 프로그램에 투영시킴으로써 경쟁력을 높여갔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워드프로세서만으로는 더 이상 MS의 구조적 지배를 당해낼 수 없다는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게다가 완성형의 기술적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조합형 한글코드의 장점을 바탕으로 존재했던 아래아한글의 경쟁력은 점차로 무디어져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아한글은 MS의 오피스 제품군들과의 호환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는 아래아한글은 시장에서 점점 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컴이 OS환경의 변화 자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면 더욱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 2. OS환경의 변화와 아래아한글

컴퓨터가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한국의 컴퓨터는 영문의 MS-DOS를 전면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PC이용자들에게는 컴퓨터가 매우 어려운 기기로 취급되어 보급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산업적인 차원에서도 MS에 상당한 로열티가 지불되고 있어 PC제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아울러 기술적으로도 개별 응용 프로그램 차원의 한글코드 지원에 비해서 OS차원의 한글코드 지원이 갖는 장점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글을 지원하는 OS를 개발하려는 모색이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1980년대 말에 있었던 K-DOS의 개발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형 OS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989년 말부터 컴퓨터연구조합을 중심으로 금성소프트웨어, 한국정보시스템 등은 공동으로 K-DOS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제1단

---

12) 한컴 관계자와의 인터뷰.



계 개발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MS-DOS와의 완전 호환, OS수준에서 완벽한 한글·한자 지원, 한글 명령어를 지원하는 것으로 1990년 말까지 추진되었다. 제2단계 개발은 다기능 지원, 리얼타임 지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강화, 네트워크기능 지원, 보안기술 등을 목표로 1993년까지 추진되어 K-DOS 5.0이 완성되기에 이른다. 당시 개발비로는 9억 6천만원이 소요되었고 이 중에서 36.5%인 3억 5천만원을 정부가 지원하였다. 개발을 추진한 측에서는 K-DOS가 MS-DOS를 대체함으로써 OS의 수입대체 효과를 이루고, 한글명령어의 사용으로 인해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PC업계가 MS-DOS에 익숙해져 있는 PC사용자들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K-DOS의 채택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기대와는 달리 K-DOS는 시장의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MS윈도의 도입은 K-DOS가 완전히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MS가 1993년부터 OS에 윈도 개념을 도입하고 윈도3.0에 MS-DOS 호환기능을 삽입하면서 1995년에 이르면 본격적으로 윈도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특히 MS-DOS가 MS윈도를 띄우기 위해서는 일종의 정크코드(junk code)가 필요했는데, MS가 그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K-DOS는 MS윈도를 구동시키지조차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전폭적으로 지원한 K-DOS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한경우 1997: 28).

비슷한 무렵 한컴의 OS에 대한 대응전략을 보면, 점차로 윈도OS가 한글코드를 지원하는 대세에 뒤처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한컴은 아래아한글의 도스 버전을 고집하였으며, 윈도 버전을 뒤늦게 출시하여 도스용 워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우위를 윈도용 워드프로세서 시장으로 이전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시장성이 거의 없는 IBM OS/2버전 개발에 착수한 것도 한컴이 1990년대 이후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을 드러낸다. 엄밀하게 말하면, 1990년대 말에 찾아온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서의 말로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즉 새로운 OS로서의 윈도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표준경쟁에서 MS의 제품군이 유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한컴은 도스시장에 안주하면

서 윈도우용 한글 워드프로세서 개발에 주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기술추세에 역행하는 한컴의 이러한 전략적 실수가 당시의 한국적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한컴의 활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윈도우3.x가 전세계 표준OS로 자리잡아 가고 있던 당시 윈도우 버전의 기술적인 실패를 겪은 한컴은 시대를 역행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게 된다. ‘도스용 아래아한글3.0’이라는 제품이 그것인데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 널리 팔렸다. 일반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PC가 윈도우3.x를 제대로 사용하기에는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와 같은 자원들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反) MS감정이 생겨나 있던 때에, 한컴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것이었다. 윈도우3.x가 DOS를 이용하여 부팅을 한다는 점에서 어차피 DOS 없이 윈도우3.x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과 함께 일반 사용자들의 PC를 손쉽게 업그레이드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한컴이 잘 활용한 것이었다.<sup>13)</sup>

도스용 아래아한글3.0이 성공하게 된 배경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전산망용 PC (이하 행망용PC)로 채택되었던 386SX 기종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윈도우3.x의 OS가 원활하게 구동되기 위해서는 386DX급 이상의 PC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당시 386SX 기종은 윈도우3.x의 기능을 완전하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시험용 제품이나 다름없었던 386SX 기종이 행망용PC로 채택되면서 한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아래아한글 도스용 버전을 계속 행망용PC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시대에 역행하던 한컴의 도스용 제품시장이 거대하게 형성되고, 이 시기 한컴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래아한글이 순수한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국내 고유의 워드프로세서라는 사실이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sup>14)</sup>

궁극적으로 OS환경의 변화와 연동되어 있었던 MS워드에 비하여 아래아한글과

13) 소프트웨어 마케팅 전문가와의 인터뷰.

14) 소프트웨어 마케팅 전문가와의 인터뷰.

같은 독자적인 개별 응용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MS는 OS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나 기술수준의 측면에서도 한컴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월등한 우위를 누리고 있었다. 소프트웨어시장에서 MS가 마음만 먹고 달려들면 거의 안되는 일이 없을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컴은 윈도의 등장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OS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형성된 틈새시장에서의 작은 성공에 안주한 감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래아한글이 국내시장을 잘 지킨 것이 오히려 신기한 일이었다. 그나마 한국은 문화적인 특성상 토종 워드프로세서가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그 동안 묵시적으로나마 받아들여졌던 결과인지도 모른다(정은아, 1998a: 188).

한컴은 아래아한글로 성장했지만 역설적으로 아래아한글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아래아한글이라는 제품 하나만으로 회사를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MS가 MS오피스를 앞세워 워드프로세서 시장을 잠식해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컴은 초조해졌다고 한다.<sup>15)</sup> 따라서 한컴은 인터넷서비스, 가정용 CD롬 타이틀, 마우스 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출판, 유통, 컴퓨터 방문교육사업도 시작했다. 일종의 포트폴리오 전략이었다. 그렇지만 한컴은 대부분의 경우 실패의 쓴맛을 보아야 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데다가 의욕만 앞세운 경영기법으로는 높은 현실의 벽을 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아래아한글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됐던 회사의 역량이 분산되면서 아래아한글 개발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스시대에서 윈도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윈도용 아래아한글 개발이 지연되었다. 1995년 3월에야 뒤늦게 출시된 윈도용 아래아한글3.0은 오류투성이였다. 이때부터 아래아한글의 명성은 조금씩 빛을 바래기 시작했다. 특히 주고객 층인 기업시장을 파고 들지 못한 것이 결정적 실수였다고 지적된다. 한컴은 기업고객보다 관공서나 학교

---

15) 한컴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과 같은 틈새시장 공략에 안주했다. MS가 오피스 등을 내세워 기업시장을 휩쓴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김종윤 1998).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멤버들이 속속 회사를 떠나고, 이찬진 사장이 정계에 입문 하면서, 한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다(한정호 1998a). 여기에 1997년 IMF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한컴은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MS가 1998년 초부터 전국의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에 수십만 개의 MS워드 시험판을 공짜로 뿌리는 등 공세적 마케팅을 펼치면서 한컴의 사세는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박시현 1998; 정은아 1998b). 다음 절에서는 MS와 한컴, 두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아래아한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제 3 절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책과 제도

한컴의 아래아한글 사업포기는 단순히 한컴과 MS의 두 기업 차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업간의 계약을 떠나 일반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 전개된 것과 함께 한글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산업을 뒷받침했던 한국의 정책과 제도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겠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나는 한글코드의 완성형과 조합형을 둘러싼 표준화 정책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와 관련된 한국의 지적재산권 레짐의 문제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은 한글코드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레짐의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완성형과 조합형의 사이에서 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을 때 시장은 MS의 주도로 판이 짜여졌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을 뿌리채 뒤흔드는 불법복제의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 1. 한글코드의 표준화 정책

한글코드의 표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1974년 처음으로 한국 공업규격 KSC 5601-1974가 제정되었으며, 뒤이어 1977년에 KSC 5714-1977이 제정되었다. 이후 1982년에 이르러 완성형 코드로 된 KSC 5619-1982와 조합형으로 된 KSC 5601-1982가 제정되었다(서현진 1997: 197-202). 이러한 코드들은 법률상(*de jure*) 표준으로서의 국가표준으로 제정이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모두가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았다. 당시의 컴퓨터 제조업체는 각각의 한글코드를 사용했으며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글을 표현하는 데 장점이 있었던 조합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로 PC가 대중화되면서 한글코드간의 호환성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가중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 중심으로 한글코드의 표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부분 조합형 코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완성형보다는 조합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각각 자신의 코드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시도하다 보니 아무런 결말도 낼 수 없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코드를 포기할 경우 이전에 판매했던 제품과의 호환성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의 제품판매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코드를 지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당시 2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던 한글코드 표준화의 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형 코드를 포기하고 완성형 코드인 KSC5601-1987 내지는 KS완성형 코드를 채택하는 쪽으로 귀결되었다. 당시 완성형을 채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완성형이 ISO에서 정한 국제규격과 호환되었기 때문이었다. 완성형 코드의 채택 이후 한글코드 표준화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

우여곡절 끝에 1987년에 완성형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었어도 상당수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계속해서 조합형을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국가에서 주도한 행정전산망 사업에서 KS완성형을 기본 코드로 채택하면서부터 완성형의 보급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뒤이은 교육용 컴퓨터 보급 사업에서는 행정전산망과 호환되는 코드를 사용한다는 원칙이 제시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KS완성형 코드가

보급되었다. 더욱이 MS가 1989년에 이르러 도스OS에서 조합형을 포기하고 KS완성형을 지원하게 되고, 중대형 컴퓨터의 OS인 유닉스 진영에서도 KS완성형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면서, 완성형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아 가게 되었다.

〈표 3-3〉 한글코드 표준화의 전개과정

1987. 3	공업진흥청이 KS 한글코드로, ISO 2022에 따른 완성형 KSC-5601-1987을 발표. 행정전산망 및 교육용-PC의 기본코드로 완성형 채택
1989	MS도스 및 유닉스가 완성형 KS 한글코드를 기본코드로 채택
1990~ '92	문화부가 한컴에 용역을 주어 한글코드와 자판 연구를 하게 함
1992. 5	문화부가 조합형 한글 코드표준 개정안을 공업진흥청에 제출함
1992. 6	한글코드개정추진협의회는 4천1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문화부, 상공부, 공업진흥청, 교육부 등 관련 8개 정부기관에 한글코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청원서를 보내는 한편 개정운동을 벌임
1992. 10	공업진흥청은 1992년 5월 문화부가 제시한 조합형 코드 표준안을 바탕으로 4개월간 전문검토를 거쳐 조합형 코드 수용을 위한 한글코드 KS규격안을 마련함
1995. 12	공업진흥청이 조합형과 완성형을 동시에 수용하는 새로운 한글코드체계 KS 5700(일명 유니코드)을 국가표준으로 제정·고시함

그러나 KS완성형이 표준코드로 보급되면서 오히려 한글코드 표준화와 관련된 논쟁이 불붙기 시작한다. 1989년에 이르러서는 컴퓨터 전문잡지를 비롯하여 일간지,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서 KS완성형 코드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당시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완성형이 한글의 문자체계를 모두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이 주로 제기되었다. 결국 KS완성형 코드를 보완하는 개정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정부가 조합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1992년에 이르러 조합형 한글코드를 완성형과 함께 복수표준으로 채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표준안은 한 종류로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사용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완성형과 조합형 두 종류를 모두 표준안으로 채택하고, 어느 쪽을 사용하든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 표준안의 골자였기 때문이다.<sup>16)</sup>

한글코드의 표준으로서 완성형과 조합형이 모두 인정되던 상황에서 1995년에 이르러 정부는 공식표준으로서 유니코드2.0도 제정하게 된다. 유니코드2.0에서 한글은 두 가지 영역으로 배정되었다. 첫 번째는 현대 한글 11,172자를 완성형 방식의 코드 순으로 배열하였는데, 이들은 완성형처럼 완성된 음절을 기준으로 배정하였다. 그러나 유니코드의 완성형은 1987년의 KSC5601 완성형 코드와는 다르게 일정한 조합 규칙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초성, 중성, 종성을 자소 단위로 배정한 조합형 코드로서 2바이트 상용 조합형이나 KSC5601-1992 표준 조합형처럼 고정된 길이가 아니라 자소 개수만큼 사용하는 n-바이트 형식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유니코드2.0이 발표되자마자 정부는 이를 KS 5700이라는 이름의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게 된다.<sup>17)</sup>

한편, 한글코드의 표준이 난립하던 1995년의 상황에서 MS는 이른바 확장완성형을 제안한 바 있다. 확장완성형은 MS가 독자적으로 제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윈도 95와 함께 도입되었다. 기본적으로는 KS완성형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한글 8,822자를 미사용의 코드영역에 추가로 배정한 방식이다. 조합형과의 논쟁에서 완성형이 표현하지 못한다고 지적되어온 나머지 한글을 모두 표현하려는 것이 확장완성형의 취지였다.

그렇지만 확장완성형의 기술중심적 발상은 격렬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다. 정부까지 나서서 확장완성형을 채택한 윈도95를 사용거부 및 수입규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였다(『국민일보』 1995. 9. 16). 그 반대의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확장완성형은 한글 자모순서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확장완성형 코드는 기존의 2,350자 완성형의 틀에 8,922자의 글자를 억지로 끼워 넣은 형태이므로 글자가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게 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완성형과 조합형, 그리고 유니코드의 국가표준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완성형의 등장이 한글코드의 난립을

16) 한글코드 전문가와의 인터뷰.

17) 유니코드 관련 자료로는 다음 웹사이트의 자료를 참조. [http://www.klipl.com/info/hgcode/hgcd\\_rpt.html](http://www.klipl.com/info/hgcode/hgcd_rpt.html); <http://147.46.161.129/aorta/sub1/08/08com-1.html>

가중시키리라는 것이었다. 결국, 새로운 제품의 시장진입을 앞두고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MS가 한글 윈도우95에 확장완성형을 채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정부표준안인 기존의 완성형 코드를 따르기로 하면서 문제는 일단락 지어졌다(『국민일보』 1995. 12. 18).

한글코드의 표준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인프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글코드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단일 표준안이 신속히 나와서 복수표준으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었는지도 모른다.<sup>18)</sup> 그러나 이렇게 제정된 한글코드 표준안이 국제규격과 호환성을 갖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었다. 다시 말해, 한글코드의 표준화 정책은 대내적으로 단일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호환되는 표준을 채택해야 할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코드의 표준화 정책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기보다는 한글코드와 관련된 다수의 표준이 공존하는 상황을 방치한 면이 없지 않다. 그 와중에 국내시장에서는 조합형과 완성형으로 진영이 나뉘어 소프트웨어 표준경쟁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OS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MS가 한글코드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왔던 것이다.

## 2. 지적재산권 레짐

아래아한글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으로 모두가 공통적으로 자각하고 반성했던 문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심각성이었다. 1998년 당시 이찬진 사장도 한컴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불법복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불법복제가 횡행하는 상황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맞선 더 이상의 승부내기는 역부족이었다 ... 해마다 30~5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워낙 심해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고 토로하였다(『전자신문』

18) 소프트웨어 마케팅 전문가와의 인터뷰.



1998. 6. 16). 실제로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ssociation, 이하 BSA)<sup>19)</sup>에 따르면, 2001년 전세계 평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36%이며, 불법복제로 인해 전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은 약 15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내 불법복제율의 경우는 2000년 56%에서 2001년 48%로 8%정도 감소하였으나, 아직 선진국들의 20%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 불법복제로 인한 국내 손실액은 2,239억원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높은 불법복제율은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불법복제에 대한 문화적 차원의 관용, 그리고 여기서 비롯되는 느슨한 지적재산권 레짐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만질 수 없는 자산(intangible assets)'은 '실재(實在)'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널리 공유되는 사회적 재산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한국사회에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지적재산권 레짐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은 물론이다(김상배 2002b).

그런데 여기서 정치경제적인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후발국의 지위에 있던 한국의 정부나 기업들이 이러한 느슨한 지적재산권 레짐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암묵적으로 활용하고 조장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후발국인 한국에서는 기술이전을 받거나 기술모방을 통해 선발국을 추격한다는 명목 하에 느슨한 지적재산권 레짐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경우에도 반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를 단속하는 조치는 사용자들에게 정당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케 하는 의미를 넘어서 후발국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곤 하였다. 이러한 사례 중의 하나가 1990년대 초반 BSA가 나서서 펼친 불법복제 단속과 이에 대해서 표출되었던 한국민의 정서적 반응이었다.

19) 초기엔 이 이름을 사용하다가 후에 Business Software Alliance로 바꾸게 된다. 홈페이지 <http://www.bsa.org> 참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어지던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체인 BSA가 창설되고, 한국에도 상륙하여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된다. 국내에서 정보통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BSA와 제휴하는 형태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를 설립한 것이 그 예이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및 불법적인 유통을 막아 건전한 소프트웨어 유통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을 기본 취지로 내세운 이들 단체들은, 199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한국 소프트웨어시장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단속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의 조치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미국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의 활동쯤으로 인식되었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초반까지 이렇다 할만한 국내 소프트웨어업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BSA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단속이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BSA에 가입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로는 한컴이 가입되어 있는 정도였다.<sup>20)</sup>

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부터 시작된 BSA의 대대적인 활동 강화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가졌던 반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한국기업들간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불화마저 야기하면서 BSA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악화되었다.<sup>21)</sup> 급기야 한컴의 이찬진 사장도 이러한 국민적 정서에 몰려 BSA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다. 당시 한컴이 굳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밝힌 이유는, BSA가 한국 내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단속할 때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국산 소프트웨어인 아래아한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한컴의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자회견 직후 한컴은 곧바로 BSA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한컴은 자신들의 기업정체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일정한 선을 그으려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 한

20) 소프트웨어 마케팅 전문가와의 인터뷰.

21) 소프트웨어 마케팅 전문가와의 인터뷰.

컴이 노렸던 것은 국민적 정서에 동승함으로써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고취하려는 것이었다.<sup>22)</sup>

그 이후 한국에서는 국민정서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단속을 펼치려는 경향이 등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한컴도 무분별한 단속을 통한 불법복제의 근절보다는 소비자의 의식개선을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던 것이다(오창호·주영혁 2000: 116). 그러나 불법복제에 대한 이러한 미온적 대응이 불러온 경제적 파급효과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름 아닌 한컴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래아한글은 국내 워드프로세서 중에서 가장 높은 사용율을 자랑하면서도 실제 매출액은 사용율을 훨씬 밑도는 수치였다. 다시 말해, 아래아한글이 시장점유율만 높았을 뿐 정품을 구입하는 구매자는 10%도 안되었다는 것이다. 연간 30~35억원의 워드프로세서 R&D 비용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신제품 개발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컴이 6개월 간격으로 신제품을 내놓아야 하는 워드프로세서시장의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래아한글을 포기한 것은 오히려 당연했는지도 모른다.<sup>23)</sup>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진행과정에서 아래아한글을 위기에 처하게 만든 책임이 불법복제를 한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고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등장했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인식은 구체화되어 용산전자상가를 중심으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고객 서명운동이 일어났으며 정품사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복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활동도 이루어졌다. 또한 MS의 투

22) 한컴 관계자와의 인터뷰.

23) 물론 불법복제에 관한 한 MS나 한컴 모두가 피해자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MS가 엑셀과 파워포인트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MS오피스를 가지고 불법복제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데 반해, 한컴은 불법복제가 많아 실제 매출은 얼마 되지 않는 일반 소비자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다.

자가 무산된 이후에도 '백두대간 정품 소프트웨어 보부상'이 구성돼 전국 각지의 대학을 돌며 운동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뒤늦은 불법복제 근절의 운동이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던 아래아한글을 되살릴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 제 4 장 한글도메인과 언어민족주의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과 같은 한글민족주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다.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 현실공간인 정보산업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면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비추얼공간(virtual space)인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정체성을 지키자는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의 경우도 단순한 운동의 논리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인터넷 도메인체계의 표준화라는 기술의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유사 점에도 불구하고,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아래아한글의 경우와는 다른 동학을 갖고 전개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글인터넷주소운동에 담겨있는 사회문화논리의 규명과 함께 이에 편승하려는 경제적 이해관계 및 다국어도메인의 관리를 둘러싼 정치적 의도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이념'의 차원에서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의 논리와 전개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의 상층이 관찰되는 영역으로서 ACE나 UTF 등과 같은 언어코드의 표준화 문제 및 다국어 키워드 서비스의 표준경쟁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다국어 도메인 관리의 '제도'를 구축하려는 국제적·국가적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다국어 도메인과 관련된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략방안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 제 1 절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의 전개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al Top Level Domain, 이하 gTLD) 수준에서 제도화가 되기 전에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이하 ccTLD) 수준에서라도 한글 도메인을 도입하자는 논의의 배경에는 한글 도메인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인터넷을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즉 영문 도메인이름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내 인터넷 사용자층을 겨냥하여 한글 도메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의성의 논리와 함께 제기되는 것이 소위 민족적 문화정체성의 논리이다. 도메인이름을 영어로만 표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국가마다 민족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글이라는 자랑스런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영문으로만 인터넷주소를 만들어 쓰는 것은 인터넷에서 민족어의 뿌리를 해치는 것이며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길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한글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이러한 논리에서 출발하였다. 즉, “사이버공간에 자기 집 문패를 한글로 써서 달자”라는 것이다(정달영 2002).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사용인구 중 비영어권이 4억3백5십만명으로서 세계인구의 약 6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아시아계 언어 사용자가 1억7천9백4십만명으로서 세계인구의 약 28.3%를 차지하고 있다(Global Reach 2002). 이렇듯 비영어권 인터넷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모국어를 사용하여 쉽게 인터넷상의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의 영어 알파벳에 기반한 체계를 넘어서서 자국어로 된 주소 체계를 만들자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2002년 9월 현재, 한글 사용자도 전체 인터넷사용 인구의 4.5%인 2천8백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2001년 2월 현재, 전체 3천1백3십억 건에 달하는 세계 웹사이트의 1.3%가 한국어 콘텐츠인 것으로 밝혀졌다(Global Reach 2002; eMarketer 2001). 이에 따라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욕구도 높아져가고, 사이버공간상의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글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한민족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는 한글 도메인을 사용하자는 문제제기가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sup>24)</sup>

24) 전자신문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이 공동으로 지난 2000년 3월 6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만1,502명의 응답자 중 찬성이 83%

그러나 한글 도메인에 대한 문제제기는 기업, 한글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산발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이었고 일정한 구심점을 통해 결집된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논의의 진행도 인터넷 도메인 관리체계가 .com, .org 등의 gTLD수준과 .kr의 ccTLD수준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체계로 정착되어 나감에 따라, 각각의 수준별로 누가 다국어 도메인, 또는 한글 도메인을 어떻게 제공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논의로 분산되었다. gTLD수준의 다국어 도메인(한글.com)을 관리하는 베리사인(Verisign)의 경우,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 다국어 도메인 표준안과 관련된 결정이 담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던 2000년 11월 서비스 일정을 발표하고 한글 도메인 등록을 시작한 뒤 2001년 3월까지도 IETF 표준안 결정이 연기되자 상용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하기까지 하였다.

ccTLD수준의 한글도메인(한글.기업.kr)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KRNIC)을 통하여 도입되고 있다. KRNIC의 주소위원회(Number and Names Committee, 이하 NNC)의 인터넷이름분과위원회(Namecom)<sup>25)</sup>와 기술분과위원회(EngCom),<sup>26)</sup> 그리고 KRNIC의 실무진 차원에서 한글도메인에 관한 기술적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2001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한글도메인 시범 시행을 통해 한글도메인 실행시의 문제점을 점검하였고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제안된 다양한 방식의 코드를 테스트 운영해 왔다.<sup>27)</sup>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가장 완성된 한글도메인에 대한 표준안은

---

로 반대 17%의 5배 가까이에 달해 한글도메인을 사용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자신문 2000. 3. 20).

25)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넷이름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고 공청회를 통해 주소위원회에 상정, RFC-KR 문서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는다.

26) 도메인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이 결과를 이름분과위원회나 주소위원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7) 베리사인의 한글.com 등록이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는 한글.kr 도메인의 빠른 시행을 위한 외부적 요구가 증가되었다. 사실 일본, 중국, 대만에서는 베리사인의 다국어.com 등록에 자극을 받아 몇 달 내에 성급하게 등록 서비스를 시작했었다. 하지

RFC-KR<sup>28)</sup> 작업이다. 이를 통해 한글 인터넷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한편, 한글도메인의 표준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RFC-KR-134를 통해 “.한국” 또는 “.한”이라는 최상위 도메인을 정의하는 한편, RFC-KR-122를 통해 “대학, 기업, 정부, 넷, 단체, 연구” 등의 2단계 공공도메인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한글 인터넷 공동체를 위한 주소자원의 범위에서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 일반 최상위 도메인, 그리고 언어 코드 최상위 도메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말 도메인 이름에 사용 가능한 글자의 범위로 한글, 한자, 그리고 기존의 영문 도메인에 쓰는 문자 등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한글도메인이 상호호환성을 문제로 시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1999년에 한글도메인 방식의 다른 형태인 한글 키워드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한글 키워드서비스는 입력창에 한글로 키워드를 입력하면 미리 등록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도메인을 찾아 이를 연결 접속시키는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한글도메인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글인터넷주소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운동이 활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00년 12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리얼네임즈(Realnames)가 한글키워드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이다.

---

만 KRNIC 의 주소위원회(NNC)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행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IETF의 인터넷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베리사인이나 일본, 중국, 대만에서 전세계적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국어 혹은 자국어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실시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02년 9월 현재 아직까지 완벽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도메인 등록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28) RFC(Request for Comments)라는 문서는 IETF에서 인터넷 표준을 제정할 때 사용하는 문서의 종류로, 특정 인터넷 표준이 제안되면 이에 대한 인터넷 초안 문서를 우선 만들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지면 인터넷 표준 문서인 RFC 문서로 등록되게 된다. 주소위원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RFC-KR 문서를 지속적으로 등록시켜 국내 인터넷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 선점을 둘러싼 표준경쟁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인 넷피아는 리얼네임즈의 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있어 왔던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넷피아의 주장에 따르면, 한글 인터넷주소를 사용하는 일은 사이버공간을 구획하는 데 있어서도 “영어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소중한 한글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노력의 일환”이며, 한글인터넷주소는 한글과 더불어 한민족의 고유 자산이기 때문에 외국업체인 MS와 리얼네임즈가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MS나 리얼네임즈와 같은 외국업체가 한글인터넷서비스를 주도할 경우, 개인신상 정보유출, 국부유출 이외에도 기술적, 문화적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업계와 한글 관련 사회 단체, 일반 사용자를 설득하는 전략을 펼쳐나갔다.

〈표 4-1〉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의 전개과정

일 지	사건의 진행
1999. 9	넷피아, 한글 인터넷 키워드 서비스 시작
2000. 10	미국 리얼네임즈의 국내 키워드 시장 진출이 시장 잠식을 발생시킬 우려를 표명하면서 KRNIC이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나섬으로써 파장 확산(실현 되지 않음)
2000. 12. 11	미국 리얼네임즈, 한글 키워드 시장 진출
2001. 1. 2	넷피아, 리얼네임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제소 검토
2001. 1. 19	한글인터넷센터(HINC), 미국 리얼네임즈와 한글 인터넷 키워드 등록영업독점권 확보
2001. 2	HNIC, 넷피어를 IP 부당 변경으로 제소함
2001. 6	미국 베리사인, 리얼네임즈와 제휴
2001. 12. 2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방식을 키워드방식의 표준으로 선정
2002. 1. 29	한글인터넷주소추진총연합회 출범
2002. 4	KRNIC이 넷피어를 무고죄로 고소
2002. 5. 14	리얼네임즈, 키워드 서비스 중단
2002. 5. 28	넷피아가 한글키워드방식의 도메인서비스 국내특허(등록번호10-0317059)를 획득

그 결과 네티피아 주도의 ‘인터넷 주소의 한글화’ 논의가 발전되어 각 사회단체가 연합하는 형태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2002년 1월에는 한글인터넷주소추진총연합회의 출범(www.hiau.org)으로 구체화된다. 한글인터넷주소추진총연합회는 2002년 1월 29일 거래문화연구소, 국어정보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글문화세계화운동본부, 한글재단, 한글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한글 관련 49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이다. 또한 네티피아, 인터넷기업협회, 한국i닷컴, 프리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서 하나로통신, 데이콤, 천리안 등 ISP 업체들과 들이 후원 단체로 등 50여 개의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한글인터넷주소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한글 키워드 서비스가 국내업체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확인했다. 한글인터넷주소운동과 관련된 사태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영어권 중심의 언어 문화 예속화”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해서 정보화 시대의 민족언어를 사이버공간에서 활성화하자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주소의 한글화는 “한글 문화의 산업화,” “민족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일이자 한글 문화를 세계화하는 일”, “한글 문화권내의 한민족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일” 등과 같은 주장을 그 기저에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언어와 민족을 동일시하고 한글이라는 문자 표기 수단의 고유성을 강조하며 한글에 민족주의적 정서를 부여하고 이를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토대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19세기 이래의 한글민족주의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글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할 때의 인터넷 주소 입력창은 한민족이 사이버공간에서 열을 공유하는 ‘열 공유의 창’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인상적인 한글민족주의적 발상의 사례이다. 이러한 한글민족주의의 상징성을 자산으로 활용하여 네티피아는 리얼네임즈와의 대결을 한글민족주의와 다국적기업간의 대립이라는 부각시키고 구체적으로는 한글인터넷주소추진협의회의 결성을 이루어 내었던 것이다.

〈표 4-2〉 한글도메인에 대한 세 가지 입장

한글인터넷주소총연합회 및 네티피아	일반인 및 기업의 일부 의견	주소위원회(NNC) 및 KRN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어권 사용자로서 영문 주소 입력의 불편함을 개선</li> <li>· 해외로 등록비용이 지불 되지 않아 불필요한 외화 유출 방지</li> <li>· 민족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일</li> <li>·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 과업 수행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도메인은 세계화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 국가 경쟁력 약화</li> <li>· 한글도메인을 찾는 외국인 이 많지 않을 것</li> <li>· 영어 도메인을 갖고 있는 국내 수십만 이용자에게 이중의 비용 부담전가; 경제적 손실</li> <li>· 기존 영문 도메인 사용에 제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도메인은 풍부한 언어 표현으로 인터넷의 효율적 사용가능</li> <li>· 한글도메인에 관한 기술 및 정책과 더불어 외부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국제활동 추진 필요</li> </ul>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표 4-2〉와 같이 한글도메인에 대하여 세 가지 입장이 표출되었다. 첫 번째는 언어와 민족을 동일시하고 민족언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민족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언어민족주의적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민족정체성의 논리로서 인터넷상에서 한글을 통하여 자국어권을 수호하자는 것으로 네티피아와 한글인터넷주소총연합회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입장은 언어민족주의 논리의 강조로 오히려 인터넷 세상 속의 '섬(island)'이 되지 않을까 하여 한글도메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작금의 공용어인 영어에 의해 인터넷에서의 모든 활동이 가능한데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의 추진이 열린 환경의 인터넷사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에 반감을 나타내는 일반인 및 기업이다. 세 번째는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차원에서 한글도메인에 대하여 꾸준히 논의하여 온 주소위원회(NNC)의 입장이다. 민족정체성에 대한 정서는 인정하지만, 국제표준을 수용함으로써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호환성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트워크라는 인터넷의 특성은 제대로 살리는 의미에서 기술적 차원에서는 세계적인 추세를 쫓아가나, 한글을 통하

여 인터넷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점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아직까지 범민족적인 운동의 차원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하였다. 게다가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한글인터넷주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했다기보다는 넷피아라는 기업의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데 그쳤다는 한계를 보인다. 넷피아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위해 공기업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천명하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넷피아가 주도했던 한글인터넷주소화운동은 영어 및 그 기술적 짝인 ASCII 코드가 지배하는 사이버공간에서 한글인터넷주소의 제도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논의 없이 키워드 서비스 방식이 한글인터넷주소 방식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부각되어 다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한글인터넷주소운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초로서의 다국어 도메인 관련 언어코드 표준화 및 다국어 키워드 서비스가 갖는 표준경쟁적 성격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 제 2 절 언어코드 표준화와 한글키워드 서비스

한글도메인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동학을 알기 위해서는 다국어 도메인의 표준화와 기타 관련 분야에서의 표준경쟁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국어 도메인은 비영어권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의 이해(利害)가 사이버공간에서도 사실상(de facto) 표준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영어 중심의 글로벌 논리에 대한 반론으로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반론은 우선 영어에 기반을 둔 ASCII 코드와 이에 대항하는 UTF (UCS Transformation Format) 코드 사이의 언어코드 표준화를 둘러싼 논쟁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키워드 서비스 분야에서 리얼네임즈와 넷피아이 한글키워드 시장을 놓고 벌인 표준경쟁에서도 드러났다.

## 1. 다국어 코드의 표준화

다국어 도메인이 작동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상호 연동성(interoperability)이다. 도메인이름체계는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체제로 공통적인 규약에 따라 그 분류 체계가 정해지는데 현재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서 관리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게 되면 그 이름은 각 해당 최상위도메인(TLD; Top Level Domain)의 관리기관에 저장된다. gTLD는 해당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의 서버에 저장되고 ccTLD는 각국의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의 서버에 저장된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도 도메인 이름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도메인 이름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각 네임 서버가 전세계적인 인터넷 표준인 RFC1591의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 ASCII라는 공통된 언어 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네임 서버가 인식할 수 없는 언어 코드를 사용한다거나 www.domain.kids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최상위 도메인이름체계를 사용할 경우 혼란이 일게 되고 원하는 도메인을 찾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도메인체계는 이와 같이 동일 규약과 공통 언어 코드에 기반하여 상호 연동 가능한 기존의 체계와 후방 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을 지녀야 한다. 한글도메인이나 중국어 도메인 등의 다국어 도메인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상호 호환성의 문제는 한글이나 중국어 등의 다국어 코드를 네임 서버가 인식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것과 다국어 코드를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언어로 된 코드를 어떤 네임서버로 연결시켜 줄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합의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글도메인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전세계적인 다국어 도메인을 추진하는 주체들과의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기존의 도메인이 7비트(bit)로 되어있는 ASCII 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이 다국어 도메인 체계를 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도메인 이름이 7비트로 되어있다는 것은 도메인 네임 서버에서 정보를 한꺼번에 7비트만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비트 코드를 사용하는 한글, 일본어, 중국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8비트 코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각국에서 사용하는 언어 코드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EUC-KR이라는 8비트 코드를, 일본은 Shift-JIS라는 코드를, 중국과 대만은 GBK와 Big5라는 것을 언어 코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언어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각각 다른 시스템간에 상호호환성의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ASCII 코드와의 호환성을 마련하는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 제안된 가장 대표적 방안으로는 기존 네임서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국어를 영문자로 변환하는 ACE(ASCII Compatible Encoding) 방식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네임서버 자체를 교체해 8비트 코드로 표현되어 온 다국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UTF(UCS Transformation Format) 방식이 있다.

〈표 4-3〉 다국어 인코딩방식 비교

	ACE 방식	UTF 방식
사용문자	ASCII	Unicode
사용비트	7 bit	8 bit
장 점	기존 DNS와 호환	모든 문자 표현가능
단 점	윈도2000, Solaris와 비호환	기존 DNS와 비호환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언어코드 표준화의 문제가 논의된 것은 초기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APNG(Asia-Pacific Networking Group) 활동이나 수년에 걸친 개발과정과 시범시행절차를 걸쳐 idnkit<sup>29)</sup>를 발표한 일본 JPNIC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

29)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자체적인 다국어 도메인 서비스 툴을 개발하여 보급 중이나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외에서는 채택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초기에 발표했던 mDN kit를 idnkit로 개명한 것은 다국어 도메인을 지칭하는 용어가 특정 언어문화에 중점을 둔 multilingual이라는 용어보다는 서로 다른 언어 코드의 개념인 internationalize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IETF와 ICANN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어졌고, 현재는 전세계 기술표준을 관장하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인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IETF에서는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개발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1999년 11월 준비 모임인 BoF<sup>30)</sup>를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 1월에 다국어 도메인 이름체계(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이하 IDN) 워킹그룹을 형성하였다. IETF의 IDN 워킹그룹의 목적은 다국어 도메인과 관련된 요건을 명시하고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정책이나 관할 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장이 아니라 오직 기술적 협력만을 위해 조직된 것이다. 이 워킹그룹에서는 다국어 도메인의 필요 요건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발표하는 한편,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코드에 대한 테스트 및 평가를 하여 최종 사용 코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다국어 도메인은 APNG에 의해 1998년에 UTF5를 이용한 서비스가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 코드는 보편화 되어있지 않아서 널리 사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기 때문에 이후에는 ASCII 코드와 호환성이 있는 코드로 변환시키는 ACE 방식인 RACE(Row-Based Ascii Compatible Encoding)를 채택하여 보급하게 되었다. 한글이나 일본어 등의 문자를 ASCII 코드로 변환시키는 ACE 방안을 사용하게 되면 다국어 도메인을 지원하지 않는 전 세계의 수많은 네임서버들이 무리 없이 새로운 도메인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RACE 방식으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의 간자체와 번자체 등을 변환시켜 본 결과, 길이가 너무 길어져 이름 공간이 줄어드는 등 적절하지 못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다국어 도메인의 실제 수요자인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는 UTF8을 지속적으로 선호하고 IETF의 제안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IETF에서는 기존에 등록된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자국어 도메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다국어 도메인을 ASCII 코드로 변환시키는 DUDE, Puny code 또는 AMC-ACE-Z, RACE, MACE 등과 같은 방안들의 효율성 테

---

30) Boys of a Feather의 약자로, IETF 내에서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정식 워킹그룹을 형성하기 전에 약식으로 갖는 모임을 의미한다.

스트를 하였는데, 이 결과 압축률 등이 뛰어난 Puny code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Yoneya, et al. 2001).

〈표 4-4〉 IETF IDN 워킹그룹의 ACE 테스트 결과

	CN	KR	TW	JP
DUDE	---	---	---	---
Puny code(AMC-ACE-Z)	++	++	+	+
MACE	-	++	++	++
RACE	+	-	-	-

주: --- 아주 나쁨, -: 나쁨, +: 좋음, ++: 아주 좋음

자료: Yoneya, et al. 2001

〈표 4-4〉의 평가 결과를 보면, 어떤 언어로부터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Puny code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IETF의 IDN 워킹그룹에서는 Puny code를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IETF의 IDN 워킹그룹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여러 논의 끝에 Puny code를 표준안으로 결정하였고 IETF와 ICANN회의를 통한 확정만을 남겨두고 있다(『내외경제』 2002. 10. 30). 그러나 표준안이 확정되었다고 하나, 1970~1980년대 국내 전자산업 내에서의 조합형, 완성형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표준의 논리는 반드시 기술적으로 우월한 표준이 사실상의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무엇을 표준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논쟁에 지나치게 휩쓸리기 보다는 새롭게 형성되는 표준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며 재빠르게 국제 표준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다국어 도메인 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는 길일 것이다.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또 하나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다국어 도메인의 범위이다. 즉, 다국어 도메인을 영문 최상위 도메인 이하 단계에서만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최상위 도메인에도 다국어 도메인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영문 최상위 도메인 하에서의 다국어 도메인은 “한글.com”과 같이 일반 최상위



도메인 내에서의 다국어 도메인(다국어.gTLD)과 “www.アドレス.jp”와 같이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내에서의 다국어 도메인(다국어.ccTLD)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다국어 최상위 도메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기업”과 같은 다국어 일반 최상위 도메인과 “會社.中國”과 같은 다국어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의 생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국어이니 만큼 “문학.한글” 언어 코드를 최상위 도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표 4-5>는 이 같은 다국어 도메인의 종류와 각각의 분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4-5> 다국어 도메인의 범위

종 류	분 류	예 제
다국어.ascii	다국어.gTLD	www.公司.net, 한글.com
	다국어.ccTLD	www.アドレス.jp, www.회사.kr, 華人.商業.tw
다국어.다국어	다국어.다국어gTLD	삼성.기업
	다국어.다국어ccTLD	アドレス.日本, 會社.中國, 기업.한국
	다국어.다국어언어TLD	문학.한글

물론 다국어 최상위 도메인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루트 서버(root server)에 다국어 도메인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문 최상위 도메인 내에서 다국어 도메인에 비해 다국어 최상위 도메인은 더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영문 도메인에서 .info나 .biz 등 7개의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을 추가하는데 ICANN에서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수없이 많은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을 만들어 내도록 되어 있는 다국어 최상위 도메인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한국 등에서 국가 코드나 언어를 다국어로 표현하는 도메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ICANN 내에서의 IDN 위원회에서 비(非) ASCII 문자를 사용하는 최상위 도메인의 종류를 분류해 놓는 등 다국어 최상위 도메인의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sup>31)</sup>

## 2. 한글키워드 서비스의 표준경쟁

베리사인은 IETF의 IDN 워킹그룹의 공식적인 표준이 발표되기 전에, 영문 도메인 앞에 “bq-”라는 문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RACE(Row-Based Ascii Compatible Encoding) 인코딩 체계를 도입하면서 선접수 선등록의 원칙에 따라 2000년 11월 10일 등록을 개시하였다. 수 분만에 대다수의 “인기” 도메인 등록이 마감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포르노.com’ 등 일부 인기 도메인의 등록시점이 베리사인이 등록을 받기도 이전인 10월로 되어있는 것은 RACE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다수의 등록자가 11월 10일 한글.com 도메인 등록 개시 이전인 10월에 bq-로 시작하는 RACE 시스템을 사용하여 한글의 인기 도메인들을 영문으로 변환시킨 후 이들을 마치 영문 도메인인 양 등록하여 사실상 정식으로 한글.com 도메인 등록 이전에 인기 도메인들을 선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도메인들이 문제가 되자 베리사인에서는 11월 중순 경 이들 도메인들을 정식 한글도메인으로 다시 인식하는 과정을 밟기도 하였다.

〈표 4-6〉 한글 다국어 도메인 지연 일정

일 지	사태의 진행
2000. 11	미국 베리사인 서비스 일정 발표, 한글도메인 등록 시작
2000. 12	한글도메인 서비스 1월로 연기
2001. 1	미국 베리사인 상용 서비스 대신 3단계 시범서비스안 발표
2001. 3	IETF 표준안 결정 연기
2001. 4	한글 다국어 도메인 등록자 반발, 환불요구
2001. 4	일부 국내업체 등록비 환불방침 선언
2001. 10	한글도메인 등록기간 6개월 무료 연장
2002. 2	현재 미국 베리사인 사용 서비스 무기한 연기

31) ICANN의 IDN committee에서는 ASCII 문자가 아닌 문자로 된 다국어 도메인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일련의 문서들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있다. ICANN IDN Committee(2002a), ICANN IDN Committee(2002b); Kato(2001).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리사인의 이와 같은 서비스 지연은 상업적 이익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다국어 도메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그 서비스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베리사인이 제공하려했던 다국어 도메인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gTLD라는 점이 더욱 더 그 서비스의 불안전함을 부각시켰다. 이전에 대만이나 중국에서 도메인 등록을 받은 경우는 주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응용 소프트웨어에서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서버에서의 서비스 까지도 일부 제공하는 등 다각도로 다국어 처리를 할 수 있었으나 gTLD의 경우에는 전 세계의 서버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로 사용자들의 응용 소프트웨어 차원에서의 서비스만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또한 기존의 ASCII 코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질서 속에 다국어 도메인이 자리잡으려면 언어 코드의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핵심적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주었다.

이렇게 표준화가 담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문 도메인을 대체하는 한글도메인 대신, 한글키워드 서비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한글도메인으로 등장하면서 한글인터넷주소 논의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영문 키워드서비스 부문에서는 리얼네임즈(RealNames)가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한국시장의 한글 키워드서비스의 경우는 예외이다. 한국은 토종업체인 넷피아와 리얼네임즈가 불꽃 튀는 서비스 경쟁을 벌여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글 키워드서비스는 지난 1998년 벤처기업인 넷피아이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넷피아는 당시 지방선거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키워드서비스를 개발, 1999년 9월 정식서비스를 개통하였다. 넷피아는 그 후 2년여만에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드림라인, 데이콤 등 23개의 ISP와 제휴하고 40여 개의 인터넷 포털업체와 500여개의 등록업체를 확보해 60만개가 넘는 한국, 일본, 중국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루 700만건에 달하는 사용건수와 4만개 이상의 실제 등록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넷피아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 미국의 베리사인과 MS 등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서비스 업체인 리얼네임

즈가 2000년 말부터 국내에 진출하면서 한글키워드 시장경쟁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네티피아는 자체 개발한 도메인 포워딩 방식을 1999년부터 상용화하여 표준 도메인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도메인을 일부 대체하는 편리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 왔다. 네티피아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서비스(keyword service)는 다국어 사용하는 이름을 키워드 서비스 업체에 등록해 놓고 이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키워드를 입력하여 도메인으로 연결시켜 주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즉, 키워드 서비스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거쳐가야 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키워드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거쳐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키워드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도메인 네임 서버에 설치하는 server-side 해결책이고 두 번째 방법은 키워드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주소를 찾도록 익스플로러 같은 인터넷 검색 소프트웨어에 설정해 놓는 client-side 해결 방법이다.<sup>32)</sup>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들이 별도의 노력 없이 손쉽게 한글이나 중국어 이름을 이용하여 도메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서버에 키워드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모든 업체의 도메인 네임 서버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키워드 서비스 업체인 네티피아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네임 서버에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법인 소프트웨어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사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자신의 소프트웨어에서 네임 서버를 지정해 주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더러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상당히

32) Server-side 솔루션이건 client-side 솔루션이건 키워드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범용되기에 많은 무리가 있다. Server-side 솔루션의 경우에는 모든 네임 서버 제공 업체와 협약을 맺어 키워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client-side 솔루션의 경우에는 모든 사용자의 소프트웨어를 각각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 서비스는 지역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급이 쉽지 않다. 하지만 2002년 5월까지만 해도 리얼네임즈(Real Names)에서는 MS와 계약을 맺고 MS의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의 검색 창에 한글이나 일본어 등 다국어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국어 도메인을 찾아주는 특정 네임서버로 연결을 시켜주는 서비스를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client-side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12월, 미국 MS의 지원을 받는 리얼네임즈가 국내 키워드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그런데 리얼네임즈의 국내 시장 진출은 MS가 익스플로러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키워드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민족주의적 반발을 일으키는 사건이었다. 그 동안 키워드방식 한글도메인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고 계층적 방식의 도메인만 정부주도로 추진하겠다고던 KRNIC이 MS와 제휴하여 직접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파장이 일게 된다. 이에 대해서 네티피아를 비롯한 업계는 KRNIC이 키워드방식의 한글도메인을 민간차원에 맡긴다는 약속을 어기는 일이고 이용자 편의도모와 안방지키기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으며 더욱이 독과점문제로 지탄받고 있는 MS와 공공기관이 손잡는 것은 국익차원이나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또한 일반 사용자들 역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한글을 팔아먹는다”,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라는 비판이 홈페이지에 올려지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KRNIC은 한글도메인 서비스에 MS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일단락 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리얼네임즈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네티피아와의 대립구도가 명확해지게 된다. 네티피아는 리얼네임즈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윈도우에 탑재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검색 창에 한글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다국어 도메인을 찾아주는 특정 네임서버로 연결을 시켜주는 방식이 MS의 OS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임을 내세워 리얼네임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리얼네임즈와 등록 영업 독점권 계약을 맺고 있는 한글인터넷센터<sup>33)</sup>는 네티피아의 서비스 방식이 원래 MS의 서버로 연결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IP를 부당 변경하는 방식으로 넷피아와 그 협력사들이 익스플로러의 기본 설정을 변경시켜 트래픽 하이재킹(Traffic Hijacking)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조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언론사와 ISP 업체에 보냄으로써 양자간의 공방이 심화되었다.

양사간 대립이 극에 달하자, 리얼네임즈와 넷피아가 만나 인터넷 키워드 서비스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기로 한다. 이들은 키워드 서비스가 현행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미비점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도메인 이름 시스템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였다(『inews24』 2001. 5. 11). 그리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지도 하에 워킹 그룹을 결성, 업계 나름의 표준안 마련에 나섰다. 6개월간의 논의 끝에 도달한 협회의 결정은 “키워드 질의 때 객체주소를 변환키 위해 이용자가 네임 서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결정은 시장을 양분하고 대립 중이었던 넷피아와 리얼네임즈, 양사의 서비스 방식 중 어느 한 쪽으로 표준안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전자신문』 2001. 12. 28). 이 표준안의 실질적 의미는 망 사업자가 누구냐에 따라 서비스 방식이 결정되었던 것을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로 넷피아, 리얼네임즈 등의 키워드 네임 서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의 노력과는 별도로, MS는 2001년 하반기에 출시할 익스플로러 6.0부터 브라우저에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 검색사이트를 선택해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대응하게 된다(『디지털타임즈』 2001. 6. 18). 이러한 대응은 암호화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넷피아의 서비스 방식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던 초기의 입장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다. 기존의 익스플로러 5.5가 옵션에 선택할 수 있는 검색 사이트를 MSN만을 등록해 놓아 주소 입력창에 한글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적합한 사이트가 없으면 자동으로 MSN으로 연결해주도록 설계돼 있었던 것이 독점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와 같은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 5.5 버전의 경우, 국내 ISP들에게 넷피아측과 제휴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설득

---

33) 한글인터넷센터(HINC)는 한닉, 한글로 닷컴, 후이즈 등 키워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한 것을 모태로 한다.

력을 가지기 힘들었지만 새 버전이 나올 경우, ISP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검색사이트들도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리얼네임즈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즉, 양사간 대립의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비스 방식의 독점 및 부당 ISP 변경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리얼네임즈가 MS와의 계약 갱신 실패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넷피아가 한글키워드 방식의 도메인서비스 국내특허를 획득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넷피아가 획득한 특허는 '인터넷주소의 자국어 표기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해당 URL(예: www.kisdi.re.kr) 대신 키워드(예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를 입력했을 때 해당 페이지(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 이 방식은 도메인 네임서버를 거치지 않고 웹 브라우저 상에서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MS가 리얼네임즈를 통해 해오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따라서 넷피아가 향후 MS가 독자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MS의 키워드서비스가 자사의 특허에 침해하는 것으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벤처가 MS를 혼냈다"는 식으로 일단락 지어지게 된다.

키워드서비스의 도입 문제는 계층형 한글 도메인체계의 수용문제와 함께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한 대목이며, 특히 두 가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키워드서비스에서 표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ccTLD 수준의 한글도메인처럼 공식적인 기구가 나서서 진행하는 '표준화(standardization)'의 문제라기보다는 민간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표준을 놓고 벌이는 '표준경쟁(standards competition)'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TA가 나서서 제시한 키워드서비스 표준이 공식적인 권위를 갖고 해당 이해당사자들에게 수용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양을 답습하는 것은 키워드서비스의 표준경쟁적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키워드서비스는 인터넷 도메인의 표준화 문제보다도 데이터베이스산업이나 지식정보서비스 일반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글 키워드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나친 언어민족주의적 반응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넷피아닷컴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주소의 한글화운동의 경향을 보면 일차적으로는 그 대의에 공감하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세계표준과의 호환성의 문제를 냉철하게 고민하는 흔적이 부족해 보인다. 게다가 한글 키워드는 한글 도메인하고도 달리 민간사업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도메인이름체계의 일종인 한글의 인터넷주소체계가 갖은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한글 키워드의 동아시아 진출에 대한 부분이다. 최근 넷피아닷컴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터넷 도메인 관리체계에 불만을 지닌 중국, 대만 등 외국 도메인 관련기관 및 기업들과 연대를 통해 키워드 시장의 새로운 세계질서 또는 지역질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동아시아연대나 이 분야에서의 '열린 민족주의'의 시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 3 절 다국어 도메인 관리의 제도화

다국어 도메인은 비영어권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한편 기존의 도메인 공간을 획기적으로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관리권 및 정책 결정권이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가 역시 큰 이슈로 대두된다. 도메인을 관리한다는 것에는 등록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메인 분쟁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는 각 언어권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각 지역의 입장이지만 ICANN이나 IETF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표준 및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다국어 도메인 관리의 문제는 크게 gTLD차원의 제도화와 ccTLD차원의 제도화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 1. gTLD차원의 다국어 도메인 제도화

전술한 바와 같이 다국어 도메인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간의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국어 도메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 언어공동체 상호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기술적 표준화를 비롯한 다국어 도메인 정책과 제도는 국제기구, 각 언어사용권, 각국 정부, 기업, 기술전문가 및 인터넷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간의 경쟁구도 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ICANN, IETF 등 기존 도메인 체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들 내에서는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다국어 도메인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던 중국어권의 국가들,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다국어 도메인 관련 활동에 협력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다국어 관련 협의체로는 2000년 6월에 다국어 도메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한 MINC(Multilingual Internet Names Consortium)<sup>34)</sup>와 2000년 7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인터넷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다국어 도메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JET(Joint Engineering Team)이 있다.

또한 각 지역 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언어별 협의체가 구성되어 논의를 활발하게

---

34) 다국어 도메인을 지칭하는 Multilingual이라는 용어는 MINC가 채택함으로써 널리 보급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언어를 강조하는 multilingual이라는 용어에서 언어 코드를 강조하는 internationalized라는 용어로 바뀐 것은 IETF의 iDN 워킹그룹과 ICANN의 IDN-Committee 등 세계적으로 도메인 관련 표준 및 정책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internationalized였기 때문이다. IETF 및 ICANN에서는 각국의 언어 및 문화까지도 고려를 해야하는 Multilingual이라는 용어보다는 단순한 언어 코드만 고려하면 되는 internationalized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실제 다국어 도메인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결성한 협의체인 MINC([www.minc.org](http://www.minc.org))에서는 Multilingual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대비해 볼 수 있다.

진행시키고 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것은 2000년 5월에 중국어 도메인 이름 협의체(CDNC; Chinese Domain Name Consortium)이고, 그 외 2001년 7월 결성된 일본어 도메인 협의체(JDNA; Japanese Domain Name Association), 타밀어를 사용하는 지역간의 협의체인 INFITT(International Forum for IT in Tamil) 등이 활약하고 있다.

비영어권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고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자 ICANN과 IETF에서도 각기 2001년 9월 ICANN의 Montevideo 회의에서 조직된 IDN Committee와 1999년 IETF의 BoF로 시작된 IDN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국어 도메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관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략적인 방향만이 논의되고 있을 뿐 쟁점 자체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쟁점별로 구체적인 입장 등이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포함하여 다국어 도메인을 관리하는 주체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IETF, ICANN, ITU 등의 국제기구이다.

첫째, 인터넷의 기술 표준을 정하는 IETF의 RFC 문서 등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IETF에서는 이미 IDN 워킹그룹을 생성하여 다국어 도메인의 기술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기술 표준을 중심으로 관리되면 전세계적인 호환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영문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는 ICANN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2000년 11월 베리사인이 다국어 도메인을 등록하면서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논의가 gTLD 영역으로 확산되자 ICANN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1년 3월 ICANN 이사회 내에 IDN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다국어 도메인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 워킹그룹에서는 2001년 8월 최종 보고서를 내고 새로운 IDN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ICANN 2001). 이에 따라 2001년 9월 ICANN에서는 IDN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ICANN의 IDN 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다국어 최상위도메인(IDN, IDN), 키워드, 레지스트라의 선정과정, 그리고 분쟁 조정 정책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ICANN의 IDN 위원회에서는 2002년 6월 최종 보고서를 내어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ICANN의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CANN IDN Committee 2002b).

- 1) 점을 사용하는 키워드나 유니코드 서비스에 반대
- 2) 현재 도메인 이름이 7bit ASCII 문자 사용하는 것에 주목, 허용 가능한 코드의 범위를 보수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
- 3) Non-ascii TLD의 범위에 국가, 언어, 문화, 기존 TLD를 포함시킴
- 4)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개발 필요성 언급

여기서 주목할 점은 ICANN에서 역시 IETF와 마찬가지로 UTF8의 사용을 반대했다는 것, 그리고 다국어 최상위 도메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ICANN이 관리하게 되면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표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상호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com이나 .org와 같이 영문으로 된 일반최상위 도메인 하의 다국어 도메인의 경우에는 ICANN이 가장 권위적인 관리 주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과연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ICANN이라는 영어 중심, 미국 중심의 조직이 과연 얼마나 한국 또는 그 이외의 다국어 사용 국가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특히 이들이 관할하는 루트서버 내에 ‘한’ 또는 ‘기업’과 같은 다국어 gTLD를 등재함으로써 스스로의 관할권한을 분산시켜 가면서까지 비영어권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세 번째는 기타 국제 단체이다. 예를 들어 각국 도메인 매니저들의 모임인 cc-TLD, 또는 ccSO가 하나의 가능한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가 하면 인터넷 도메인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도 그 국제적 대표성 면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1년 12월 ITU와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움(Multilingual Domain Names: Joint ITU/WIPO Symposium)에서는 다국어 도메인에 대하여 ITU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지역·언어권 차원의 제도화를 살펴보면, 지역간 협의회는 1998년 APNG의

다국어 도메인 워킹그룹의 형성으로 시작되었다. APNG에서는 1998년 국제도메인 이름체계(iDNS) 프로젝트를 발주하였고 1999년 2월 시작된 testbed에 싱가포르, 태국, 중국, 홍콩,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9년 11월에 i-DNS라는 기업이 창설되고 상업적인 다국어 도메인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일본, 중국, 한국 등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자국어 도메인 개발 노력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각국에서는 다국어 도메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0년 6월에 지역간 다국어 도메인 협의체인 MINC(Multilingual Internet Names Consortium)를 결성하게 된다. MINC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들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인터넷을 비교적 활발히 이용하는 국가들이었다. MINC에서는 아랍어, 타밀어, 인도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각 언어별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각 언어별 협의를 독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호호환성 워킹그룹, 등록정책 워킹그룹 등을 결성하여 각 지역의 노력이 서로 상호 협력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INC는 전체 회원들에 대하여 강제성을 띠는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각 회원들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서로간의 협력을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례로 2000년 7월 결성된 등록정책 워킹그룹에서는 각국의 다국어 도메인 실행시에 공통적으로 참조해야 할 권고 사항을 2001년 1월의 하와이 회의 때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등록은 선접수, 선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 2) 다국어 도메인을 등록할 때 등록 정책은 특정 언어를 국가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을 고려하는 것을 권장한다.
- 3) ccTLD하에 등록된 도메인에 대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도메인은 그 지역의 분쟁조정정책(Local Dispute Resolution Policy)의 규제와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이외에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터넷 관리기관인 KRNIC, CNNIC, JPNIC,

TWNIC 등이 기술 중심으로 자국어도메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JET(Joint Engineering Team)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다국어 도메인에 사용할 언어 코드 및 다국어 도메인 접속 기술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자의 간자체/번자체를 어떻게 하나의 코드로 통일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언어협의회가 결성되었다. 특히 중국어 협의회(CDNC)의 경우 중국, 대만, 홍콩 등 활발한 자국어 도메인 개발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회라는 점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어 협의회는 2000년 5월 발족된 이래 수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ICANN이나 IETF의 다국어 도메인 관련 활동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어권에서는 앞에 언급하였듯이 중국이 2000년 1월에, 그리고 대만이 2000년 5월에 이미 중국어 도메인 등록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험과 지속적인 개발 노력을 바탕으로 정책, 기술, 표준 관련 협의에 많은 진전을 보여 중국어 도메인 표준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한자의 간자체/번자체를 UTF8이라는 세계 공통의 언어 코드로 표준화 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JET를 통하여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중국어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성명서를 내는 한편 IETF의 IDN 워킹그룹의 마지막 의견 수렴 기간에 성명서를 내는 등 중국어 관련 국제 표준에 자신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CDNC 2000; 2002).

중국어 협의회 활동이 이처럼 활발하게 전개되자 일본에서도 JPNIC과 일본의 도메인 업체들을 중심으로 일본어 도메인 협의회(JDNA; Japanese Domain Name Association)가 2001년 7월 결성되었다. 하지만 일본어 관련 표준에 대한 활발한 국제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지는 않다.

이밖에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타밀어를 사용하는 지역간의 협의체인 INFITT(International Forum for IT in Tamil)이 있다. INFITT은 타밀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다양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0년 7월 결성된 조직으로, 2002년 9월의

샌프란시스코의 5회 회의까지 수백명이 참가하는 타밀어 관련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도메인 이름 관련 워킹그룹은 그 활동의 일부이다. 이 그룹은 또한 MINC의 타밀어 워킹그룹에도 참여하여 국제적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INFITT에서는 타밀어를 처리하기 위해 유니코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MINC에서 아랍어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협의체 구성을 위한 워킹그룹과 러시아어 도메인 이름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각 언어 협의체별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다국어 도메인 이름을 위한 다양한 언어별 협의회가 결성되었다고 해서 그 언어 사회 내에서의 협의만으로는 다국어 도메인 이름이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영문 도메인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과 호환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특정 지역에서만 도메인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도메인 이름 시스템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국제적 표준 및 관리를 하고 있는 IETF 및 ICANN의 활동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언어 사회가 다국어 도메인을 관리한다면 실질적으로 언어가 통용되는 언어 사회의 필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에서 같은 중국 문자라도 간자체와 번자체라고 하는 두 가지 코드를 사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즉, 해당 언어 사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하에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언어 사회는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새롭게 조직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그 조직이나 위상이 아직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말 그대로의 협의체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 2. ccTLD차원의 다국어 도메인 제도화

다국어 도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

각각 자국어 도메인 서비스 개발 노력을 기울였다. 앞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일본의 JPNIC에서는 다국어 도메인 개발을 위한 Task Force를 1999년 5월에 결성하여 mDN kit라는 다국어 도메인 툴을 개발하였다. 일본의 mDN kit는 일본어 도메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국어 도메인에도 사용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2002년 9월에는 이름을 mDN kit에서 idnkit로 변경하여 발표하는 한편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례의 시범시행기간을 거쳤는데 2000년 11월의 1차 시범시행의 목적은 일본어 도메인 이름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도메인 이름 체계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전자우편과 같은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일본어 도메인 이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되어 있다(JPNIC 2002). 이어 일본에서는 2001년 4월부터 일본어 도메인 등록을 받기 시작하였고 2001년 5월의 2차 시범시행을 시작하였는데 그 목적은 1차와 유사하였지만 1차와는 달리 2단계 도메인을 허용하였고 IETF의 세계 표준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2차 시범시행 기간이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sup>35)</sup>

일본은 자국어 도메인의 2단계 등록을 허용하면서 영문 도메인의 2단계 등록도 함께 개방하였는데 이는 도메인 등록의 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이자 도메인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표 4-7>을 살펴보면, 일본어.jp의 등록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어 도메인의 등록율이 저하된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의 이유로는 co.jp 도메인이 한 기관당 하나의 도메인만 허용하는데 비해 2단계 도메인은 무제한의 등록을 허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2단계 도메인보다는 성격이

---

35) 2단계 도메인을 허용하였다는 것은 co.jp 등과 같이 특정 영역을 지정하여 도메인 등록을 받지 않고 .jp 앞에 직접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2001년 4월에 일본어 도메인 뿐만 아니라 영문 도메인도 2단계 등록을 허용하였다. 2차 시범시행에 대한 공고문은 JPNIC(2002)를 참조.

뚜렷이 규명된 co.jp 도메인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일본어 도메인의 등록이 낮은 또 하나의 이유로는 일본어 도메인 사용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지원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도메인 자체를 이용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등 다른 부가 서비스가 잘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도메인 등록기관인 JPRS에서는 2001년 8월 인터넷 익스플로러 5.0 이상의 버전에서는 주소입력 창에 일본어.jp 도메인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도메인의 등록율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표 4-7〉 일본의 도메인 등록율

일시	영문 도메인					일본어 도메인	총계
	ac.jp	co.jp	or.jp	3단계 소계	영문.jp	일본어.jp	
2001/03/01	2427	195965	11550	243514	-----	-----	243514
2001/04/01	2481	200485	11993	249475	33255	18962	301692
2002/04/01	2770	233971	14885	291881	134769	62128	488778
2002/10/01	2845	241186	15968	298822	143228	51822	493872

자료: JPRS, 2001

대만은 2000년 5월부터 중국어 도메인 등록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중국어 도메인 등록은 동일 명칭을 지닌 영문 도메인이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 도메인은 2000년 10월까지 무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도메인을 지닌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商業.tw, 組織.tw, 網路.tw 도메인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서 대만의 3단계 중국어 도메인은 영문 도메인의 등록 수와 거의 비슷한 수가 등록되었음을 볼 수 있다.

3단계 중국어 도메인과 더불어 대만에서는 2001년 1월부터 2단계를 개방한 중국어 도메인의 등록을 받고 있다. 하지만 2단계 중국어 도메인은 2001년 22,610개가 등록되었다가 2002년 4월 27,903개로 약간 늘어난 후 2002년 10월에는 25,337개로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2단계 도메인이 개방되었지만 가장 많은 등록 수를 보이는 것은 com.tw에 해당하는 商業.tw 도메인이다(〈표 4-8〉 참조).

중국에서는 2000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중국어 도메인 등록을 받기 시작하였다. 대만에서는 한 기관이 하나의 중국어 도메인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반면 중국에서는 한 기관이 최대 50개, 하루에 최대 5개 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의 도메인 이름 서비스는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혹은 도메인 네임 서버에 변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 4-8〉 대만의 도메인 등록을

일 시	중문 도메인					영문도메인
	商業.tw	組織.tw	網路.tw	.tw	중문합계	영문합계
2000. 6	72,727	2,064	768	-----	75,559	94,720
2001. 6. 1	86,635	2,724	798	27,581	117,738	118,789
2002. 6. 1	84,976	3,038	793	24,809	113,616	123,157

자료: TWNIC, 2000

한국에서 한글 도메인에 대한 논의는 주로 KRNIC의 주소위원회(NNC, Number and Names Committee)의 인터넷 이름분과위원회(Namecom)과 기술분과위원회(EngCom), 그리고 KRNIC의 실무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소위원회에서는 우선 한글 도메인에 대한 RFC-KR 작업을 통해 우리말 인터넷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한편, 한글 도메인의 표준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을 정의하는 문서를 통해 “.한국,” “.한”이라는 최상위 도메인을 정의하는 한편, “.kr 아래 2단계 한글 공공도메인”을 정의하는 문서를 통해 “대학, 기업, 정부, 넷, 단체, 연구” 등의 2단계 공공도메인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우리말 인터넷 공동체를 위한 주소자원의 범위에서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 일반 최상위 도메인, 그리고 언어 코드 최상위 도메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말 도메인 이름에 사용 가능한 글자의

범위로 한글, 한자, 영문 도메인에 쓰는 문자 등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KRNIC은 언어사회를 기반으로 한글 도메인 정책 마련과 시행의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다국어 도메인을 실시한 .jp, .tw, .cn 등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인터넷 관리기관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전례가 있으므로 KRNIC이 한글 도메인 정책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의 상호 합의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동 워크샵의 시행이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의 마련 등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세계가 넘는 분단을 거치면서 현실 생활에서의 언어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글 도메인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하여 동일 언어 사회의 구성원,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일본, 대만, 중국에서는 다국어도메인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하는 자국어도메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입력한 도메인을 영문으로 변환시켜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응용 프로그램에, 혹은 도메인 네임 서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이들 다국어 도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국어 도메인을 인식할 수 있는 검색기를 사용하거나 전 세계의 도메인 네임 서버가 이들 다국어 도메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국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국어 도메인이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에서는 지역별·언어별 협의회를 결성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세계화시대의 언어민족주의의 문제를 정보화전략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는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등장한 언어민족주의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어의 형성은 서구에서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제어로서의 라틴어와 각 지방의 언어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근대적인 민족주의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해 언어민족주의라는 '이념'은 근대 국민국가라는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민족의 '이해(利害)'를 결집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글의 창제도 밖으로는 당시 국제어로서의 한문(漢文)으로부터 조선인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안으로는 일반 대중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초기적 민족주의로의 '애민정신(愛民精神)'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되어온, 한글을 중심으로 한 한민족 의식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겪으면서도 남과 다른 우리만의 고유한 것을 드러내는 민족의 상징으로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한글이라는 우리만의 글자를 가졌다는 사실은 한국인에게 민족주의적 정서를 부여하였다. 다시 말해, 이는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고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글민족주의적 정서는 순한글 신문으로서의 『독립신문』의 등장과 '한글전용운동'의 구체화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1998년 발생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은 이러한 한글민족주의의 현대적 발로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보화 분야에서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응하는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정서가 한글을 구현하는 국산 워드프로세서인 아래아한글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거대한 다국적 자본에 맞서 아래아한글을 살리려는 민족주의적 대응은 MS의 투자를 철회케 함으로써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견 한글민족주의의 승리로서 비추어질 수 있는, 이 사건의

향후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운동차원에서만 이해될 수 없는 복합적인 정치경제적 논리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을 촉발한 MS와 한컴의 계약이 있기 전부터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MS의 구조적 지배는 성숙되어 왔으며, 한컴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이면에 존재했던 정치경제학적 구조는 한컴이 한글 워드프로세서시장에서 MS와 벌인 표준경쟁이라는 맥락에서 발견된다. 이는 한국시장에서 양사가 한글코드의 개발과 OS환경의 변화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벌인 비대칭적 경쟁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컴은 MS가 제시해온 OS의 한글코드 지원기능에 순응하기보다는, 한글의 기본원리인 초성, 중성, 종성의 결합원리에 맞는 것으로 알려진 한글코드를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경쟁은 OS의 우위에 바탕을 둔 MS가 채택하였던 사실상의 한글코드가 득세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한편, 한컴의 아래아한글 사업포기는 단순히 한컴과 MS의 두 기업 차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기업간의 계약을 떠나 한글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산업을 뒷받침했던 한국의 지적재산권 레짐과 밀접히 연관되는 것이었으며,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의 한글코드 표준화 정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완성형과 조합형의 사이에서 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을 때 시장은 MS의 주도로 판이 짜여 가고있었으며, 한국은 소프트웨어산업을 뿌리째 뒤흔드는 불법복제의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시장의 구조적 조건과 한국의 제도적 환경 하에서 아래아한글이 겪은 경로는 오히려 운명적인 수순이었는데도 모른다. 단순한 한 차례의 언어민족주의적 운동으로 살려내기에는 아래아한글을 덮어씌우고 있던 구조적 제약이 너무 컸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2000년 이래 한글도메인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위의 아래아한글 살리기 운동이 형태를 달리하여 나타난 또 다른 언어민족주의의 발로라는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한글인터넷주소 도입을 둘러싼 갈등, 베리사인

의 다국어도메인 서비스 지연 문제, 넷피아와 리얼네임즈 간에 일어난 한글키워드 서비스 경쟁 등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한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비영어권 인터넷 사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국어를 사용하여 쉽게 인터넷상의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의 영어 알파벳 체계에 기반을 둔 주소 체계를 넘어서서 자국어로 된 주소체계를 만들자는 의도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한글을 사회적 필요와 문화적 상징으로서 활용하면서 한국인의 민족정체성을 사이버공간에서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과 마찬가지로 한글인터넷주소운동도 단순히 운동적인 차원에서만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동학을 그 이면에 깔고 있었다.

사실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의 이면에는 MS의 지원을 받는 리얼네임즈의 국내시장 공략에 맞대응하려는 특정 기업, 즉 넷피아의 이해(利害)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 아래아한글을 놓고 한컴이 벌였던 기업마케팅의 전략이 넷피아의 그것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도메인이름체계의 표준화 과정에서 다국어 도메인을 둘러싼 ACE와 UTF 등 언어코드 표준화 문제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다국어 관련 언어코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만의 표준을 부추기는 운동적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었다. 비영어권 언어사용자 공동체의 이해가 사이버공간에서도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국어도메인을 둘러싼 국제사회에서의 제도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이 두 사례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정보화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세계화시대의 언어민족주의가 갖는 전략적 시사점을 이 글에서 설정한 이념, 이해, 제도의 틀을 염두에 두면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글사용을 중심으로 한 두 사례는 기술과 경제를 앞세운 다국적 기업의 구조적 지배를 이겨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언어민족주의

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한국사회의 문화적 독특성은 이러한 언어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운동에서 평상시에는 발견할 수 없는 힘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한글의 컴퓨터 처리를 한글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외국 기업이 담당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기업의 제품에 구현된 한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왠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듯이 보인다. 지난 1995년 확장완성형을 두고 일었던 논란처럼 개발자의 기술적인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언제 한글의 기본활용원리가 무시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독점이 확고하게 형성될 때 이러한 발상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고, 시장의 논리 내에서는 이에 대항할 수 없을 경우, 이러한 독점의 횡포를 막는 것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정서에 의지하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사례는 한국에서 구조의 엄습을 유예하고, 또한 그 구조적 엄습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게 한 힘이, 기업도 국가도 아닌 운동이라는 이념적 변수에서 나왔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의 독자적 추구 필요성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령 지역단위에서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사이트의 경우나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 사이트 등에 한글 도메인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평생가야 영어를 익힐 가망이 없는 국민들에게 글로벌한 차원의 상호연동성을 빌미로 인터넷이 주는 혜택을 무한정 연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글 도메인의 시도를 정보화 관련 남북한 협력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한의 한글 도메인 관련 협력은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시대의 상호 이해증진과 문화적 이질감의 해소를 통한 남북한의 새로운 의사소통로를 마련하는 의미도 갖는다. 또한 남북공동으로 한글 도메인 관련 협력사업을 벌일 경우 인터넷주소의 한글화라는 단편적 목표를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운동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운동의 초점이 특정 회사나 특정 제품을 살리려는 식으로 모양이 잡힌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

다. 다시 말해 이념 내지는 운동적 요소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인정할지라도 그러한 요소를 단순히 한글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식의 접근은 문제해결의 궁극적 방식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경우, 운동이 기업의 소유주가 한국이나 아니냐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MS로 하여금 한국내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업자들에게 그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토록 하는 방향으로 잡혔다면 좀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른다. 응용 프로그램이란 OS에 종속적인 개념이고 MS가 OS의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한 한컴사태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7년 운동을 통해 구사일생한 한컴이 시장에서의 구조적 제약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는 한글워드프로세서 아래아한글이 아닌 인터넷 전문회사로 변신한 것도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컴의 이같은 변신을 미리 알았더라면 당시 사용자들은 그같은 성원은 보내지 않았을 터이다.

둘째, 정보화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이념적 요소들을 활용하더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될 점은 그 시도가 '열린 민족주의'의 발상에 입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운동의 사례는 한컴 또는 넷피아의 기업전략으로서 애국심의 호소했던 '달한 민족주의'의 경향이 다분히 있었다. 이렇게 애국심에 호소하는 캠페인 식의 기업 살리기라는 것이 세계화의 시대에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인가라는 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워드프로세서나 인터넷도메인을 왜 한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생략된 채 당위성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글화를 통해 그 효용성이 증대되는 경우와 오히려 감소시키는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냉철한 인식이 선행하지 않는다면 논쟁은 엄청난 대중적 전염성을 바탕으로 하여 컴퓨터나 인터넷의 한글화가 아니라 정보산업공간이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영어에 대한 대응논리로 바뀌어 버릴 것이다. 그 결론이 미국기업이나 영어에 대한 '달한 민족주의'적 거부감으로 귀착되는 것도 예정된 수순이다. 한글화가 내포한 이같은 화인성(火因性)을 상업적으로 가장 잘 이용하는 곳은 역시 기업이다. 기업들은 때때로 정부기관까지를 움직여 그 상업성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정책적 관점에서 이러한 요소는 절대 경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표준의 동향을 유의깊게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OS의 경우, MS의 OS는 윈도우95로부터 98에 이르기까지의 시스템으로부터 변모하여 윈도우2000계열이나 XP로 이르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응용 프로그램이란 OS와 밀접하게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한글 워드프로세서 역시,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OS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다국어도메인의 분야에서도 세계표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아무리 인터넷의 한글화가 시급하더라도 이 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의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국내 스탠더드를 확정하여 자칫 고립된 섬으로 남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글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한글 도메인의 세계적인 호환성 확보라는 두 가지의 목표 중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사용자의 편리함과 문화정체성의 보호라는 논리만으로 ccTLD차원에서의 한글 도메인의 당위성을 주장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먼저 한글 도메인이 도입되더라도 만약 한글 도메인과 영문 도메인 또는 한자 도메인이 일정한 조정장치없이 동시에 사용된다면 국내 사용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으며, 한글 자판이 없는 해외에서 한글 도메인에 접근하고자 할 때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서비스가 문화종속을 막고 한민족의 문화정체성을 보호할 것이라는 논리의 경우도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단지 도메인이름만을 자국어로 쓴다고 해서 문화정체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이버공간의 문화정체성 보장에 보다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국어 도메인이름이 아니라 웹사이트상의 디지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현재 등장하고 있는 한글 도메인의 편의성과 문화정체성의 논리는 냉철한 현실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다분히 이상주의적 민족자존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글 도메인을 조망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중요시해야 할 것은 인터넷의 상호연동성(interoperability) 문제이다. 인터넷의 글로벌한 속성상 상호연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편리한 다국어 도메인이라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도메



인이름의 한글화는 언어가 갖는 경계 내에서만 그 유용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칫하면 한글 도메인의 시도는 인터넷의 바깥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섬으로 남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글 도메인이 상용화되고 ASCII코드에 기반하지 않은 한글 도메인이름만 보유한 홈페이지의 경우 한글을 모르는 해외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국어 도메인 관련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한글 기반의 인터넷라인은 언어나 프로토콜의 장벽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단되어 세계표준과는 동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 도메인은 사이버공간상의 활동범위를 한반도 내지는 한글 사용권에 스스로 한정시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ccTLD수준의 한글 도메인 논의는 반드시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gTLD수준의 다국어 도메인, 더 나아가 현행의 ASCII코드 기반의 도메인체계와의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고 한국문화를 알리는 수단을 채택한다고 할 때 현재로서는 세계표준인 ASCII 기반의 도메인이름체계를 무시하고서는 가능하지가 않다. 다시 말해 ASCII코드를 사용하는 영어가 인터넷의 세계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s)로서 군림하는 현실에서 비(非)ASCII코드 기반의 다국어 도메인의 시도는 기존의 ASCII코드 중심의 DNS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끝으로, 이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다시 말해 세계표준의 동향을 주시하고 즉각적이면서도 개방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병행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지적재산권 레짐의 문제이다.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불법복제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앞서 언급한 OS차원에 대한 정보공유(copyleft)적 접근과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인센티브를 주는 저작권(copyright) 레짐의 정비의

문제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국어 도메인의 분야에서도 제도화 과정에의 참여가 적극 요청된다. 다국어 도메인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의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국어 도메인의 개발에 각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IETF의 표준안에 빠르게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동시에 한글 언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내부적 합의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IETF 및 ICANN에 대한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글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고, 같은 한자권으로 분류되는 중국어권 및 일본어권 언어사회와의 공조에도 부지런히 참여해야 한다. 중국어 간자체와 번자체의 문제제기에서 보듯이 다국어 도메인의 실질적 수요자인 언어사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의 한글 언어공동체의 연대도 한글 도메인 관련 미래전략의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다국어 도메인은 기본적으로 해당 언어권에서 통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한글 도메인 정책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한글 언어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한글 언어공동체의 범위는 한국(.kr)뿐 아니라 북한(.kp) 및 중국·미국·일본 등지의 해외동포까지 포함해야 한다. 향후 한글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책 결정과정에 이러한 해외 한글 언어공동체를 동참시키기 위하여 국제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구체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물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한글 공동체의 연대가 이 분야의 세계표준과 호환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세계화시대를 헤쳐 나갈 정보화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정보화의 분야도 기술·경제의 논리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의 논리가 얽혀서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냉정하게 되짚어 보면,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논리에 대한 접근이 별개로 이루어져 온 감이 없지 않다. 특히 1980년대 이래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양분의 경향은 해소되기보다는 심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앞서의 두 사례는 기술·경제의 논리를 한 축으

로 하고 정치·사회·문화의 논리를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두 가지의 경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단발성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왜곡된 방향으로 표출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21세기의 세계화시대가 주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정보화전략의 마련을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논리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활용하는 지혜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국민일보』, 1995년(9월 16일; 12월 18일).
- 『내외경제』, 2002년 10월 30일
- 『독립신문』, 1896년(4월 7일자 논설)
- 『디지털타임즈』, 2001년(6월 18일)
- 『문화일보』, 1998년(6월 20일)
- 『전자신문』, 1998년(6월 16일; 22일; 24일; 25일), 2001년(12월 28일), 2002년(3월 20일)
- 『조선왕조실록』, 세종26년 2월 경자조.
- 『한국일보』, 1998년(9월 25일)
- 『inews24』, 2001년(5월 11일)
- 김상배, 2001a, “정보기술경쟁의 국제정치경제: 새로운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편),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서울: 오름).
- \_\_\_\_\_, 2001b,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과 국가의 재조정,” 『한국정치학회보』 35(4).
- \_\_\_\_\_, 2002a, “세계표준의 정치경제: 미·일 컴퓨터 산업경쟁의 이론적 이해,” 『국가전략』 8(2).
- \_\_\_\_\_, 2002b, “지적재산권의 세계정치경제: 미·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2).
- \_\_\_\_\_, 근간, “사이버공간의 미래전략: 인터넷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연구원(편) 『정보화와 한국: 쟁점과 미래전략』.
- 김종윤, 1998, “「흠글」 파동이 남긴 것 애국심만으로 시장 이길 수 없어,” 『WIN』 4(8).
- 박시현, 1998, “MS, 국내 WP 시장 무차별 공략,” 『컴퓨터월드』, 4월.

- 박영호, 1888, “조선내정개혁에 관한 건백서,” 『일본외교문서』 21권
- 서현진, 1997, 『처음쓰는 한국컴퓨터사』 (서울: 전자신문사).
- 오창호 · 주영혁, 2000, “워드프로세서의 흔들리지 않는 지배자: 인터넷시대의 새로운 도전,” 『한국마케팅저널』 2(3).
- 유길준, 1995, “서유견문,” 『유길준전서』 1, (서울: 일조각)
- 정달영, 2002.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방안,” 다국어 통합정보처리 국제학술회 발표문, (6. 15)
- 정은아, 1998a, “MS 과상공세에 한컴 고객감동 맞대응,” 『경영과 컴퓨터』 5월.
- \_\_\_\_\_, 1998b, “날개 부러진 토종 SW산업 백약이 무효,” 『경영과 컴퓨터』 6월.
- \_\_\_\_\_, 1998c, “흠글 포기... 허탈 분노 자성의 목소리,” 『경영과 컴퓨터』 7월.
- \_\_\_\_\_, 1998d, “돌아온 아래아한글 거둬나기 시동,” 『경영과 컴퓨터』 8월.
- 최현배, 1954, 『한글의 투쟁』 (서울: 정음사)
- 한경구, 1997,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적응과 변화: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0(2).
- 한정호, 1998a, “워드프로세서 시장만큼은 내줄 수 없다,” 『컴퓨터월드』 6월.
- \_\_\_\_\_, 1998b, “아래아한글, 「국민 워드프로세서」로,” 『컴퓨터월드』 7월.
- 허만길, 1994, 『한국 현대 국어 정책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홉스봄, 에릭 (강명세 역), 1994,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서울: 창작과 비평사)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y: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London: Verso).
- Bloch, Marc. 1961, *Feudal Societ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DNC, 2000. “CNNIC issues Chinese domain name,”  
<http://www.cdnc.org/e-meeting-2000-1-18.shtml>(검색일 2002. 6. 16)
- \_\_\_\_\_, 2002. “Chinese Domain Name Consortium(CDNC) Final Comments,”  
<http://www.cdnc.org/e-cdnc-2002-06-05.html>(검색일 2002. 6. 16)

- Deibert, Ronald J. 1997,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Communication in World Order Transformation*(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ebvre, Lucien Paul Victor. 1976, *The Coming of the Book, The Impact of Printing, 1450-1800*(London: New Left Books)
- Fishman, Joshua A. 1972, *Language and Nationalism: Two Integrative Essays*(Rowley, MA: Newbury House)
- Hart, Jeffrey A. 1992. *Rival Capitali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Western Europe*(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Hobsbaum, Eric J.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CANN, 2001. "Report of the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Internal Working Group of the ICANN Board of Directors,"  
[www.icann.org/committees/idn/final-report-28aug01.htm](http://www.icann.org/committees/idn/final-report-28aug01.htm)(검색일 2002. 7. 24.)
- ICANN IDN Committee, 2002a. "Discussion Paper on Non-ASCII Top-Level Domain Policy Issues (Revised Draft)," (June 13), <http://www.icann.org/committees/idn/non-ascii-tld-paper-13-jun02.htm>(검색일 2002. 10. 7)
- \_\_\_\_\_, 2002b. "Final Report to the ICANN Board," (June 27)  
[www.icann.org/committees/idn/final-report-27jun02.htm](http://www.icann.org/committees/idn/final-report-27jun02.htm)(검색일 2002. 7. 25)
- JPNIC, 2002.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tool Kit (idnkit) version 1.0 Preview Release 1 is started."  
[www.nic.ad.jp/en/topics/2002/20020927-01.html](http://www.nic.ad.jp/en/topics/2002/20020927-01.html)(검색일 2002. 10. 20)
- JPRS, 2001. "JPRS today launches a new service for browsing Japanese JP domain names-Japanese JP domain names become accessible with Internet Explorer,"  
<http://www.jprs.jp/en/press/20010827-e.html>(검색일 2002. 4. 23)
- Katoh, Masanobu, 2001.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Overview of ICANN Activities," ITU Symposium on Multilingual Domain Names(December 6)

- www. itu.int/mdns/ presentations/dayone/katoh.ppt(검색일 2002. 7. 3)
- Katzenstein, Peter, ed. 1978. *Between Power and Plenty: Foreign Economic Policies of Advanced Industrial States*(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Kim, Sangbae and Jeffrey A Hart. 2002,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Wintelism: A New Mode of Power and Governance in the Global Computer Industry," in James N. Rosenau and J. P. Singh (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Albany, NY: SUNY Press).
- Leander, Anna. 2000, "A Nebbish Presence: Undervalued Contributions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o IPE," in Ronen Palan, ed. *Global Political Economy: Contemporary Theories*(New York: Routledge).
- Sims, Calvin. 1999, "How Korean Pride Rallied to Save a Software Maker," *New York Times*(August 15).
- Thelen, Kathleen and Sven Steinmo. 199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ven Steinmo,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th,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WNIC, 2000. "Chinese Domain Name: Registration Services Trial and Status Report," Presented at Workshop for Chinese domain name, May 20, 2000, <http://www.cdnc.org/download/TWNICTrialandstatusreport.ppt>(검색일 2002. 9. 13)
- Yoneya, Yashiro, et al. 2001, "ACE Evaluation with IDNs already registered," Presented to the IETF IDN WG meeting at IETF51 in London, UK(August)  
www.i-d-n.net/ietf51/idn-london-ace-eval.ppt(검색일 2002. 7. 25)

## 약 어 풀 이

약어	용어	용어 설명	비고
ACE	ASCII Compatible Encoding	비ASCII문자를 ASCII문자(영문자, 하이픈 등)만으로 표현하는 방식	
APNG	Asia Pacific Network Group	1997년 6월 3일에 설립되어 진보된 응용과 서비스의 개발과 연구에 대한 높은 성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인 비영리 콘소시엄. 이 단체는 연구 조직을 위한 발전된 네트워크환경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협동을 조성하는 그룹임	www.apng.org
CDNC	Chinese Domain Name Consortium	2000년 5월에 설립된 중국어 도메인 이름 협의체	www.cdnc.org
CNNIC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1997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Registration 서비스, Directory and Database 서비스,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www.cnnic.net.cn
gTLD	generic Top Level Domain	전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하는 인터넷 체계로써 모든 도메인이 “.” 또는 루트(root)라 불리는 도메인 이하에 역트리(inverted tree) 구조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루트도메인 아래의 단계를 1단계 도메인 또는 최상위 도메인(TLD, Top Level Domain)라고 부르며, 차상위 단계를 2단계 도메인(SLD, Second Level Domain)이라 부름.	
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최상위 도메인으로는 com, net, org, edu, gov, mil, int 및 biz, name, info, pro, museum, coop, aero 등의 14개의 일반도메인(gTLD, generic Top Level Domain)이 있으며, 그리고 인터넷이 국제화 되면서 ISO 3166에 의거하여 세계의 각 국가들을 두자리 영문약자로 표현한 243개의 국가도메인(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2002년 8월 현재)이 있음	



약어	용어	용어 설명	비 고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인터넷 주소자원의 기술적 조정에 위해 설립된 국제민간비영리기구	www.icann.org
IDN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다국어 도메인 이름 체계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단체. 인터넷 운용의 일반적인 정책을 토의하는 단체는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임	www.ietf.org
INEFITT	International Forum for IT in Tamil	타밀어를 사용하는 지역간의 협의체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전기통신업무의 국제적 관리 기구	www.itu.int
JDNA	Japanese Domain Name Association	2001년 7월 결성된 일본어 도메인 협의체	www.jdna.jp
JET	Joint Engineering Team	2000년 7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인터넷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자국어 도메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	
JPNIC	JaPan Network Information Center	1993년에 일본의 인터넷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망정보센터로서 일본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등록 기능과 정보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www.nic.ad.jp
KRNIC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안정적인 주소관리체제를 정립하고, 인터넷 주소의 원활한 할당과 관리, 인터넷 관련 국익 보호활동, 기타 인터넷 이용 촉진을 위한 활동 등으로 인터넷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한 기구	www.nic.or.kr
MINC	Multilingual Internet Names Consortium	2000년 7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인터넷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자국어 도메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	www.minc.org
TWNIC	Taiwan Network Information Center	1994년에 설립되어 대만의 인터넷 관리를 위한 비영리단체	www.twnic.net

약어	용어	용어 설명	비 고
UTF	UCS Transformation Format	UTF(UCS Transformation format)란 UniCode로 알려져 있는 ISO/IEC-10646 Universal Multiple-Octet Coded Character Set(USC)에서 규정한 코드들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것을 일컫음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상에 있는 각종 정보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준	

● 저 자 소 개 ●

---

김 상 배

-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
-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유 지 연

- 상명대학교 정보통신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임연구원

김 진 영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 02-16

세계화시대의 언어민족주의와 정보화전략

---

---

2002년 12월 일 인쇄

2002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윤 창 번

발행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쇄 인성문화

ISBN 89-8242-225-0 93320

---

---

보급가 10,000 원